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에 미치는 집단미술치료의 효과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홍 희 림




2014년 8월

#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에 미치는 집단미술치료의 효과

지도교수 송재홍  
홍희림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홍희림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서영석   
위 원 김민호   
위 원 송재홍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4年 8月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Decreasing  
the Withdrawal Behaviors of Children**

Hong, Hee Lim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Jae H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ug. 2014**



국문초록

##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에 미치는 집단미술치료의 효과

홍희림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송재홍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집단미술치료가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가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가?

둘째, 집단미술치료의 단계별 회기진행에 따라 위축아동의 위축과 친사회적 행동 패턴은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셋째, 집단미술치료가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간에 미치는 효과는 참여한 위축아동의 특성에 따라 어떤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3명이며, 지역아동센터장과 아동의 생활을 지도하는 사회복지사의 관찰에 의해 위축된 아동으로 추천된 아동들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양적연구방법의 하나인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를 사용하여 아동의 위축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집단미술치료가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평가도구는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의 위축척

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척도 검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미술 활동 상황에서 보이는 위축과 관련된 아동의 행동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동적 집-나무 사람(KHTP) 검사와 위축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단계별 대상자의 반응 및 행동관찰,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평가지를 사용 하였다. 연구절차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실시는 2014년 1월 21일부터 2014년 3월 14일까지 총 12회기, 주 2회, 1회기 당 50분간 실시하였으며 대상아동의 미술치료 활동 상황에 위축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기록지를 사용하여 대상자들의 위축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가 위축아동의 위축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한국판 아동·행동평가척도(K-CBCL)의 위축척도 점수에서 사전·사후 T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사전에 비해 사후에 T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적 집-나무-사람(KHTP) 검사의 사전·사후 그림을 비교하여 본 결과, 위축과 관련된 표현이 사전에 비해 사후 그림에서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변화를 보였다.

둘째, 집단미술치료의 단계별 회기진행에 따라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점수에서 위축아동의 위축행동은 감소하였고 친사회적 행동은 증가하는 변화패턴을 보였다.

셋째, 위축아동의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 결정적 요인으로 회기별 참여 대상자의 반응과 행동관찰, 프로그램 활동 후 평가지 분석을 참고하여 살펴 본 결과, 집단원간 상호작용과 미술작품을 통한 자기표현 등이 향상되고 성취감을 통한 자존감 향상과 의존적이고 소극적, 수줍은 행동 등 위축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집단미술치료가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와 친사회적 행동 증가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어: 집단미술치료, 위축아동, 위축행동

# 목 차

국문초록 .....	i
<b>I. 서론 .....</b>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3
3. 용어의 정의 .....	3
1) 집단미술치료 .....	3
2) 위축아동 .....	4
3) 위축행동 .....	4
<b>II. 이론적 배경 .....</b>	<b>5</b>
1. 집단미술치료 .....	5
1) 집단미술치료의 개념 .....	5
2) 집단미술치료와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	6
2. 위축아동 .....	8
1) 위축아동의 개념 .....	8
2) 위축아동의 특성 .....	8
3. 위축행동 .....	10
1) 위축행동의 개념 .....	10
2) 위축행동의 특징 및 원인 .....	11
<b>III. 연구방법 .....</b>	<b>12</b>

1. 연구 설계 .....	12
2. 연구대상 .....	12
1) A아동 .....	13
2) B아동 .....	13
3) C아동 .....	14
3. 평가도구 .....	14
1)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	14
(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2) 동적 집-나무-사람 검사(Kinetic House-Tree-Person: KHTP) .....	16
3)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	17
4) 단계별 대상자의 반응 및 행동 관찰 .....	19
5)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평가지 .....	19
4. 처치도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	19
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진행 단계별 목표 .....	19
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활동과정 .....	20
3)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성 .....	21
5. 자료 분석 .....	24
1) 양적 분석 .....	24
2) 질적 분석 .....	24

#### **IV. 연구결과 .....** 25

1. 양적 변화 .....	25
1) 위축척도에서의 변화 .....	25
2. 질적 변화 .....	26
1) 동적 집-나무-사람(KHTP) 사전·사후 검사 변화 .....	26
2)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변화 .....	31
3) 단계별 대상자의 반응 및 행동관찰 변화 .....	34

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평가지 분석 .....	37
<b>V. 논의 .....</b>	<b>38</b>
<b>VI. 결론 및 제언 .....</b>	<b>42</b>
1. 요약 및 결론 .....	42
2. 제언 .....	44
<b>참고문헌 .....</b>	<b>46</b>
<b>Abstract .....</b>	<b>51</b>
<b>부록 .....</b>	<b>54</b>
부록 1 .....	55
부록 2 .....	56

## 표 목 차

<표 III-1> 실험설계 .....	12
<표 III-2> K-CBCL의 위축 척도 문항 .....	15
<표 III-3>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문항 .....	17
<표 III-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내용 .....	21
<표 IV-5> 아동의 위축척도 점수변화 .....	25
<표 IV-6> A아동의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회기별 점수 변화 .....	31
<표 IV-7> B아동의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회기별 점수 변화 .....	32
<표 IV-8> C아동의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회기별 점수 변화 .....	33
<표 IV-9> 회기별 대상자의 반응 및 행동관찰 .....	34

## 그림 목 차

[그림 IV-1]	K-CBCL에 의한 위축척도 T점수의 변화 .....	26
[그림 IV-2]	A아동의 회기별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척도 점수의 변화 .....	31
[그림 IV-3]	B아동의 회기별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척도 점수의 변화 .....	32
[그림 IV-4]	C아동의 회기별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척도 점수의 변화 .....	33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속하게 변하는 현대사회는 부모의 이혼 및 별거, 재혼 등의 가족구조의 변화와 교육적 기능의 약화 및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말미암아 아동으로 하여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로인하여 학교생활에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김경희, 2006).

최근 한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지나친 성적경쟁을 부추기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아동들의 놀이시간을 빼앗고 있어 더 자주 감정적으로 우울하거나 공격적이고 무기력감을 표출하는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경향신문, 2014. 3. 4일자). 또한 정서적 문제나 다른 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아동이 모든 아동의 12%이상이라는 한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한 연구도 있다(정수진, 2007).

위축아동은 발달상의 장애는 없으나 사회적 상황에서 수줍고,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어서 사회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성취하지 못하는 아동을 말한다(임은영, 2010). 이러한 위축아동의 위축행동은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발달할 수 있는 사회적 부적응 행동의 하나로 인지적 미성숙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 또래와의 갈등관계에서 성인에게 의존하는 특성(원소영, 2011)을 보이고,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게 되며 영향이 지속되면서 예후가 좋지 않은 아동기 문제행동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 행동장애의 여러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박지현, 2010; 전원재, 2006). 이러한 아동의 위축행동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부모나 교사가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무시되고 방임되어 그 행동이 유지되고 더 증가되기 때문에 아동기 이후에도 심각한 적응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게 되고(김경희, 2006), 또한 Parker & Asher(1987)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위축행동이 학교에서의 탈락, 범죄, 성인기의 정신병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아동의 발달초기에는 가정에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기술이 형성되고, 학령기에는 또래집단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Sullivan(1953)은 이 시기의 아동들에 의 아동들에게 사회적 기술의 발달, 민감성 발달, 지적능력의 발달 등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위축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 적절한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술치료는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인간 내면의 심상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무의식을 활성화하고 자신의 내면을 자극하여 왜곡되고 억제되었던 부분을 재발견하고 통합시킴으로써 인격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 Malchiodi(2000)는 다른 심리치료에 비해 미술치료는 비언어적인 의사표현으로 방어를 감소시키고 언어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아동에게 적합하며, 미술 활동을 통해 억제된 공격성, 분노, 적대감 등을 해소시켜 내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준다고 하였다. 또한 Wadeson(1980)은 미술은 자기표현에 있어 어른보다 언어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아동들에게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스로 지각하여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축행동을 보이는 위축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실패와 욕구좌절의 경험으로 인해 열등감과 불행감을 느끼고,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되는 것을 미술매체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여 위축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집단미술치료는 미술매체를 통하여 개인의 내적인 상태를 솔직히 표현하고, 미술활동이 줄 수 있는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과 자기표출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공동 작업을 통해 대인관계에 필요한 감정조망능력과 자기 조절력을 증진시키고, 여러 사람이 집단 활동을 같이 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대인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윤정란, 2007).

위축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로 사회적 위축행동 감소(송인숙, 도복늬, 김동연, 1999; 신인영, 2000; 최인형, 2002; 전원재, 2005; 윤정란, 2007)와 우울, 불안의 감소(장은선, 2012; 류명수, 2009)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

감과 자기표현 향상(김미라, 2008; 손경옥, 2013)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위축아동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아동의 위축되고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 2.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초등학교 저학년 위축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집단미술치료가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가?

둘째, 집단미술치료의 단계별 회기진행에 따라 위축아동의 위축과 친사회적 행동 패턴은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셋째, 집단미술치료가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간에 미치는 효과는 참여한 위축 아동의 특성에 따라 어떤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

## 3. 용어의 정의

### 1) 집단미술치료

이 연구에서 말하는 집단미술치료는 집단치료에 미술을 도입하여 내담자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돕고, 언어로는 접근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을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인 이미지라는 시각매체를 통해 좀 더 효과적으로 심리적인 적응과 치유를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

## 2) 위축아동

발달상의 장애는 없으나 사회적 상황에서 수줍고,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어서 사회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성취하지 못하는 아동으로(박지현, 2010; 서은영 2010) 이 연구에서는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에서 하위척도인 위축척도 점수의 원 점수를 T 점수로 환산한 결과 70점 이상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 3) 위축행동

이 연구에서 말하는 위축행동은 아동의 눈 마주치기, 자기 의사표현하기, 자기 작품소개하기, 갈등상황해결하기, 소감 나누기에 있어 어려움을 보이는 행동을 의미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집단미술치료

#### 1) 집단미술치료의 개념

미술치료의 근원적 뿌리는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시대의 선조들은 자신들과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동굴 벽화에 표현하고 실존의 의미를 심상으로 추구하였다. 이렇듯 미술치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달 해 온 인류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류명수, 2008). 한편 일부 미술가들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미술 교실을 열었는데, 많은 환자들이 미술교사와 함께 미술작품을 만드는 기회를 갖는 것이 치료의 경험이 되었던 것으로부터 미술치료가 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리고 미술치료라는 용어는 1961년 Ulman이 미술치료 학술지인 *Bulletin of Art Therapy*의 창간호에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그는 ‘미술치료는 교육, 재활, 정신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영역에서 활용되든지 공통된 의미는 시각예술을 활용하여 인격의 통합 혹은 재통합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정의 하였다(전영신, 2004).

또한 집단미술치료(group art therapy)는 집단치료에 미술을 도입한 것으로(윤정란, 2007), 집단에서 미술활동을 매개로 하여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을 미술매체를 통해 내담자의 심상을 구체화하여 표현하는 기법이다(황유경, 2003). 더불어 내담자의 감정이나 문제, 그리고 갈등을 표현하며 통찰력을 갖고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경험들을 해소해 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심리치료로서 집단 내 개인 미술의 창조 활동을 통해 집단 구성원간의 의사소통과 집단의 역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이현숙, 2011). 그리고 집단미술치료는 미술매체를 통하여 개인의 내적인 상태를 솔직히 표현하고, 미술활동이 줄 수 있는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과 자기표출을 향상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 작업을 통해 대인관계에 필요한 감정조망능력과 자기 조절력을 증진시키고, 여러 사람이 집단 활동을

같이 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대인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윤정란, 2007). 특히 자기 표현이 위협적으로 느껴져 집단을 회피하는 사람에게 방어를 줄여주고 자기 표현의 기회가 상호교류를 촉진시켜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Wadeson(1987)은 미술치료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미술은 심상의 표현이다. 이것은 미술치료에서는 꿈이나 환상, 경험이 순수한 언어적 치료법에서처럼 말로 해석하기 보다는 심상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둘째, 미술은 방어가 감소된다. 이는 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미술은 비언어적 수단이므로 통제를 적게 받으며 예상치 않는 작품이 그림이나 조소로 제작되어 작품을 통한 통찰이 일어나기도 한다.

셋째, 미술은 어떤 유형의 대상을 즉시 얻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유형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미술은 자료의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 회상할 수 있다. 즉 미술작품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만든 작품을 필요한 시기에 재검토하여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미술은 공간성을 지닌다. 미술표현은 본질적으로 공간적인 것이며, 시간적인 요소 없이 공간속에서의 연관성들이 발생하여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기 쉽다.

여섯째, 미술은 창조성과 신체적 에너지를 유발한다. 즉 미술치료는 하나의 작업이라기보다는 창조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치료란 창작을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완화시켜줌으로서 아동이 원만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손경옥, 2013). 또한 집단미술치료는 집단원 모두가 동시에 참여하기 때문에 개인적 경험과 집단적 경험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사회 참여 능력을 높여주어 보다 발전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등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백술애, 2008).

## 2) 집단미술치료와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Lowenfeld(정옥현, 2013 재인용))는 인간은 그가 속한 사회 속에서 협력하며 살

아가는 능력이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발달의 첫 단계는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창조 활동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며, 집단미술치료는 창조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한다.

위축행동은 타인과의 관계형성에서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의식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며(허경화, 2002), 또래집단의 요구를 잘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기대에 맞게 행동하지 못함으로써 또래집단으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거나 배척되는 일이 많다(조향미, 2011).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또래들로부터 긍정적인 지지 경험을 갖게 하여 이후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친사회성, 주도성, 적극성 등을 길러 원만한 또래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Suttie(한미경, 2012 재인용)는 미술에서의 표현을 자기 심상의 소극적 표출이며 사회적 승인을 위한 기호체계로 보았고, 또한 Lowenfeld(1987)는 아동은 머리에 떠오른 어떤 것이든 표현할 수 있고, 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정서적 또는 지적인 문제도 직접해결 하려고 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쉽게 적응한다고 했다. Malchiodi(2000)는 미술치료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무엇인가를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창조과정을 통해 억제된 공격성, 분노, 적대감등을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소시킴으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위축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미술매체를 숙달하는데 대한 즐거움과 자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또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동들이 자기 지향적, 자아존중,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하며 상호작용을 통한 개인적 성장을 할 수 있다(박지현, 2010).

무엇보다 집단미술치료는 여러 사람들이 집단에 참여하게 됨으로 하나의 대인 관계가 형성되어 개인치료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잠재적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특히 위축행동을 보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의 실패와 좌절경험으로 인해 느끼는 불행감과 부정적 자아개념을 미술 매체를 통해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백술애, 2008).

아동의 위축행동과 관련한 국내 집단미술치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윤정란

(2008)과 전원재(2006), 이명숙(2012)등의 연구에서 위축행동을 감소시켜 사회적 적응을 돕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와 이경희(2005)의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도 효과를 얻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배혜경(2007)의 통합교육을 받는 청각장애아동의 긍정적 사회적 관계와 자존감 경험을 통한 위축행동 감소에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 2. 위축아동

### 1) 위축아동의 개념

Moreno(박지현, 2010 재인용)가 한 집단 안에서 또래들로부터 선택되지 못한 아동을 뜻하는 말로 “사회적 위축아동”의 개념을 정의한 이래, 1970년대 이후로 사회적 위축아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연구자들이 사회적 위축아동에 대한 개념을 밝히려고 노력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위축아동에 대한 정의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연구자에 따라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에 대한 개념 및 용어 사용에 대한 차이가 연구방법이나 결과 해석에서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왔고, 연구자에 따라 인기 없는, 거부된, 무시되는, 고립된, 위축된, 충동적인, 공격적인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서종숙, 2001).

또한 행동관찰 결과에서는 친구와 상호작용 빈도가 비교적 낮은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으로 보는 입장과 사회성 지위검사에서 친구들로부터 수용이 낮거나 높은 거부를 받는 아동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축아동이란 여러 가지 개인의 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친구들과 상호작용 빈도가 낮거나 친구수용도가 낮은 아동으로(박지현, 2010), 발달상의 장애는 없으나 사회적 상황에서 수줍고,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어서 사회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성취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말한다(박지현, 2010; 서은영, 2010).

### 2) 위축아동의 특성

아동의 부적응 행동으로 과잉행동과 위축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과잉행동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으로 공격적인 언어와 폭력적 행동이라고 한다면 위축 행동은 거부당함을 두려워하여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표현하기를 거부하는 폐쇄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들의 특성은 수줍음, 소심, 위축, 은둔, 감상적이고 온순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쉽게 사기를 잃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윤정란, 2007).

Rubin(1989)에 의하면 위축아동의 특성은 집단초기에 사회적 아동보다 덜 성숙하고 덜 독단적인 반면, 더 순응적이거나, 더 공손하며, Ross(1974))는 위축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피하는 형태나 도망하는 행동을 하여 그의 행동의 한 부분이 사회적 유대관계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김인홍(2005)은 위축행동은 불안, 두려움, 긴장, 자신감의 부족, 부정적인 자아지각과 관련이 되며, 이도윤(1975)과 황정규(1968)는 위축아동들의 행동을 탐색한 결과에서 다음과 같이 위축아동의 특성들을 보고 하였다.

첫째, 다른 아동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쉬는 시간에 혼자 일없이 앉아 있는 것, 아이들이 노는데 참여하지 않고 멍청하게 구경만 하는 것, 협동 작업을 요하는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 학습준비물이 없어도 같이 쓰자는 말을 못하는 것, 자유 시간에 혼자만 멍하니 있는 것, 운동장이나 길에서 혼자만 다니는 것, 친구들과 말하지 않는 것 등 다른 아동과 어울리지 않는 것, 집에서 자기 방에만 있는 것 등이다.

둘째, 자기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 쳐다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할 때, ‘예’ 또는 ‘아니오’ 로만 답하는 것,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우물거리는 것, 또래에게 자기감정이나 의사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 어른이 조금이라도 꾸중을 하면 울기부터 하는 것, 지명을 받았을 때 재촉을 받고서야 마지못해 일어나는 것, 여러 사람 앞에서 아는 것이라도 발표하기를 꺼리는 것, 조그마한 일에도 혼날까봐 겁부터 먹는 것이다.

셋째, 자기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남의 지시에 싫어도 말 못하고 따르는 것, 학급 자치회 활동에 수동적으로만 따라 하는 것, 자기보다 약한 아이한테도 대항하지 못하는 것, 부당하게 매를 맞고도 가만히 있는 것, 속임을 당한



줄 알고도 말을 못하는 것, 놀이와 겨루기를 피하는 것, 친구들을 피해 다니는 것, 물건을 빼앗기고도 말을 못하는 것 등이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의견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위축아동의 특성을 정리하면 은둔성, 수줍음, 민감성, 타인을 꺼리는 것, 고립, 자신감 결여, 상호작용 및 적절한 또래관계의 부족 등과 같은 비사회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 3. 위축행동

#### 1) 위축행동의 개념

위축행동은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부적응 행동의 하나로 아동발달에 있어서 뿐 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최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남기엽, 2007), 타인과의 원만한 대인관계가 더욱 요구되는 현대생활에서 아동의 사회적 위축행동은 더 주의를 요해야 하는 행동이다(김경희, 2006).

Rubin과 Mills(1988)은 위축행동이 '수동적 불안(passive-anxious)'과 '능동적 미성숙(active-immature)'에 관련된 행동으로 구분되고, 서로 다른 심리적 원인과 기반을 기초로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수동적 불안과 관련된 위축행동은 사회적 불안과 우울, 두려움, 외로움과 같은 내적 특성과 부정적인 자아지각에 근거한 행동유형을 보인다. 반면에 '능동적 미성숙'과 관련된 위축행동은 인지적 미성숙, 난폭, 공격적 행동, 극단적인 자기중심성 또는 또래의 거부에 근거한 행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Campbell(1989)은 위축이란 움츠러들고 물러서고 도망가는 행위를 말하고 어떤 대상이나 외부현실로부터 물러나거나 떠나는 것이라고 하였고, Gottman(1977)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빈도가 낮은 경우나 사회관계 측정 시 또래의 수용도가 낮은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Reinert(문세민, 2005 재인용)는 위축행동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억제되고 제한된 행동이라고 하였으며, Ross(1974)는 위축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그가 능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피하는 형태나 도망하는 식으로 환경으로부터 움츠러드는 행동으로 보았다. 또한 신혜영(1994)도 위축행동의 범주

를 소극적 위축행동과 거부적 위축행동으로 나누어 소극적 위축행동은 또래와 상호작용의 기회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아동 스스로 철회하는 소극적 경향으로 부끄러움, 불안, 소심함, 과민, 무관심, 냉담, 부정적 자아지각을 말하고, 거부적 위축행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원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나 언어, 방해, 충동적 행동, 지나친 자기중심성, 거짓말, 혐오감을 주는 신체외모, 거부와 관련된 직접적인 특성으로 구분하였다(이혜영, 2005).

위의 개념들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신혜영이 구분한 개념을 사용하여 소극적 위축행동과 거부적 위축행동으로 아동의 위축행동을 정의하고자 한다.

## 2) 위축행동의 특징 및 원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들의 방어기제로서 습관화되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부적응 행동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위축행동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상황과의 접근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 안으로 숨어드는 특성이 있다. 이런 위축반응은 일시적 상황에 따라 소거 하거나 모면할 수 있지만 움츠러드는 외현적 행동이 실행될 때마다 더욱 행동은 강화되며 결과적으로 위축이라는 방어기제는 부적응 행동이 된다(배혜경, 2007).

Stewart(1995)는 사회적 위축의 발달모형에서 학령기 아동들은 집 밖에서 새로운 사회적 상황을 탐색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며 이러한 망설임은 정상적인 놀이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회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방해하여 상호작용하는 동안 불안과 고립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아동들이 이러한 위축행동을 하는 원인으로 첫째, 역할 모델이나 갈등 해결 방법의 결여로 무엇이 적절한 행동인지 모르거나 둘째, 지식은 있으나 부적절한 강화로 연습의 결여와 셋째, 바람직한 행동을 저해하는 분노, 공포, 혹은 불안과 같은 감정적 반응과 넷째, 공격성에 관한 부적절한 믿음과 원인을 갖고 있거나 다섯째, 신체적 생리적 문제에 의한 발달 지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남기엽, 2007).

### Ⅲ.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연구자는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감소를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양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척도 검사만으로 알기 어려운 미술치료 활동 상황에서 보이는 위축과 관련된 아동의 행동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회기별 활동 상황을 촬영한 비디오를 녹화·분석하여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동적 집-나무-사람(KHTP) 그림검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그림의 변화를 질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설계의 내용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실험설계

	사전	중재	사후
실험군	E <sub>1</sub>	X	E <sub>2</sub>

E<sub>1</sub>: 사전검사

X: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E<sub>2</sub>: 사후검사

#### 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제주시에 소재한 J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다. 연구자는 지역아동센터장과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자신감이 부족하고 위축되어 보이는 아동을 추천받았다. 연구자가 아동

들에게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하고 아동 본인의 참가 의사를 확인 한 후, 보호자로부터 프로그램에 참가 동의를 받은 최종 선발된 아동은 7세, 8세, 9세로 각 1명씩 3명이며, 아동의 평균연령은 8세이고, 성별은 남자 1명, 여자 2명이다.

#### 1) A아동

A아동은 9세의 남아로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시설에 맡겨져 자라다 현재 위탁가정에 위탁되어 지내고 있는 아동으로 이해력이 떨어져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외관상 특징으로 아동은 보통체격이나 매우 마른 편으로, 또래에 비해 작아 보이고 표정이 매우 어두워 보인다. 위축행동 특징은 타인을 경계하며 자주 눈치를 살피는 행동을 보이고 주위 친구들과 함께 있으나 가끔 멍해 보이고 자신감이 부족하여 위축돼 보인다.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 특히 경계하는 태도가 강하고,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피하는 행동을 자주 하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숨기거나 회피하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말이 없는 편이나 가끔 거친 말을 하면서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2) B아동

B아동은 8세의 여아로 일반 저소득층가정의 아동이다. 외관상 특징으로는 보통체격이나 약간 마른 편으로, 또래에 비해 작아 보이고 표정이 매우 어두워 보인다. 위축행동 특징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편이고 타인을 경계하며 자주 눈치를 살피는 행동을 보인다. 거의 말이 없고, 묻는 말에만 “예”나 “아니오”로 대답하며, 낮가림이 심하고 수줍음이 많다. 자신에게 주어진 활동은 잘 하는 편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쉽게 당황하며 힘들어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가만히 있는 편이다.

### 3) C아동

C아동은 7세의 여아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와 유치원에 다니는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다. 외관상 특징으로는 옷차림이 약간 낡고 체격에 비해 작거나 큰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자주 있고, 발 냄새 등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 위축행동의 특징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손을 잡는 등의 지나친 관심을 보이며 쉽게 친해지나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쉽게 토라지는 행동을 보이고, 친구들의 놀림에 대항하지 못하고 쉽게 위축되기도 한다. 또한 감정변화가 심한 편이고, 긍정적 감정은 잘 표현하나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쉽게 눈물을 보이기도 한다.

### 3. 평가도구

이 연구에서 연구자가 사용한 척도는 양적 평가도구와 질적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먼저 양적 평가도구로는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이고, 질적 평가도구로 첫 번째는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사용한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그리고 두 번째는 동적 집-나무-사람(KHTP)검사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계별 대상자의 반응 및 행동관찰이고, 마지막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평가지를 사용하였다.

#### 1)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는 Achenbach가 1983년에 제작한 CBCL을 기초로 하여 1997년에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등에 의해 표준화된 것으로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능력 척도는 친구, 또래와 어울리는 정도, 부모와의

관계 등의 사회성을 평가하는 사회성 척도, 교과목 수행정도, 학업수행상의 문제 여부 등을 평가하는 학업수행 척도의 2개 척도와 총 사회능력 척도 등 모두 3개로 이루어졌다.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위축, 신체증상, 불안/우울,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 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와 특유의 정서불안정, 그리고 총 문제행동 척도 등 모두 13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척도에 따른 항목은 총 119개이며, 각 항목은 0점(전혀 없다), 1점(가끔 보이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 2점(자주 있거나 심한 경우)의 3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임상군과 정상군의 변별력이 매우 낮은 문항 2(알레르기)와 문항 4(천식)를 제외하면 총 117개 문항에 대한 점수의 합계가 원점수가 된다.

K-CBCL은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평가자가 연구대상 자신이면 자기보고형 척도(YSR)를, 부모 및 양육자가 평가할 경우는 부모 및 양육자 평가척도(CBCL)를, 교사가 평가할 경우에는 교사 평정 척도(Teacher Report Form: TRF)를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가 아동을 평가하는 교사 평정 척도(Teacher Report Form: TRF)를 사용하였다. 교사 평정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위축된 아동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때 숨길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인 위축척도가 임상 수준인 70T(98%tile)를 기준으로 임상범위 수준의 결과를 보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용되는 위축척도는 총 9개 문항으로 구체적인 하위문항은 <표 III-2>와 같다(박지현, 2010; 황주영, 2006).

<표 III-2> K-CBCL의 위축 척도 문항

위축 척도 문항(9문항)
42.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65.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68.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 놓지 않는다.
75. 수줍거나 소심하다.
80.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한다.
88. 자주 뻘뻘해진다.

- 
- 102. 비활동적이고 행동이 느리며 기운이 없다.
  - 103.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해 한다.
  - 111. 위축되어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 

## 2) 동적 집-나무-사람 검사 (Kinetic House-Tree-Person: KHTP)

질적 분석으로 미술활동의 심리치료도구인 동적 집-나무-사람(KHTP) 검사를 실시하여 대상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에 변화가 있는 지 알아보았다. 또한 미술치료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연구대상아동의 위축행동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동의 활동작품분석과 행동변화 등을 관찰 분석하였다.

KHTP는 HTP와 마찬가지로 집, 나무, 사람을 그리도록 하는데 HTP가 각각 종이에 그리는 것이라면 KHTP는 집, 나무 사람을 한 화면에 그리고 사람의 경우 무언가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KHTP는 Burns(1987)가 발전시킨 방법으로 HTP에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역동성을 부여하도록 발전시킨 투사기법으로 그림을 통해 활동내용, 표현양식, 상징들의 교류가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들을 수 있다는데 가치가 있다(김진숙, 2007; 백술애, 2008). KHTP는 그림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과 집, 나무, 사람에 대한 크기, 위치, 운동거리와 배치양식등과 무엇을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강조되었나를 보는 내용분석을 통해 그림의 변화를 분석하고(조미란, 2012), 해석에 있어서도 Maslow의 발달적 관점을 도입하여 인간의 성장 잠재력을 함께 고찰하고 이해하게 하였다.

집(House)은 아동이 성장하여 온 가정환경과 현재 인지하고 있는 심리적 가족관계, 희망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소망, 가족들과의 역동성 등이 나타나고, 나무(Tree)는 아동 자신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자기상으로 정신적 성숙도를 의미한다. 또한 나무는 그리는 사람의 개인적 변화 과정을 반영해 준다. 사람(Person)은 자신의 이상형이나 현실상을 나타내며 사람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다. 인물화에서 사람은 나무와 상호작용함으로써 그림 그린 사람 자신이나 자아기능을 더 많이 반영해줄 수 있으며 집은 개인 생활의 물리

적 측면을 반영한다. 따라서 집, 나무, 인물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 의해 표현되는 시각적 은유를 반영하고 있으며 언어적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백술애, 2008).

따라서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위축행동에 저해되는 요소인 의사소통과 자존감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상의 변화와 내용, 크기, 위치, 표정, 특징 및 태도 등을 살펴보고 KHTP해석은 미술치료전문가 1인의 해석과 김동연 외 2인(2006)의 HTP와 KHTP 심리진단법을 참고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 3)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대상자들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상황에서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기록지를 사용하여 관찰·기록하였다. 연구자는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문항을 재구성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Oden과 Asher(1997) 및 Ladd(1981)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발견될 수 있는 위축행동의 특징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이경희(2000)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동센터 교사가 평가하는 대상아동의 특성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이 시작되기 전의 사전검사 시간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1회기 동안 아동들의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을 관찰하여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행동 평정 척도에 적용될 행동으로 정하였다. 대상자들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상황에서 보인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공통 행동은 다음의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문항

위축행동
1.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 한다. 혹은 수줍어한다.
2. 의사를 물으면 '예' 또는 '아니오' 혹은 '모르겠다' 또는 '생각이 안 난다'고 대답한다.
3. 말을 할 때 작은 소리로 말을 하거나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한다.
4. 궁금한 것이 있거나 모르는 것이 있어도 직접 물어보지 않는다.
5. 선택을 하게 했을 경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쉽게 선택하지 못한다.



- 
6. 주변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어려워한다.
  7.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데 오랜 시간 머뭇거린다.
  8. 잘못을 지적하면 매우 소심해 지고, 쉽게 운다.
  9.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10. 어떤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가 드물고 다른 사람의 활동에 무관심한 편이다.
- 

#### 친사회적 행동

---

1.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 하지 않는다. 혹은 수줍지 않는다.
  2. 의사를 물으면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한다.
  3. 말을 할 때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잘 전달한다.
  4. 궁금한 것이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직접 물어본다.
  5. 선택하게 했을 경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쉽게 잘 선택한다.
  6. 주변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친다.
  7. 주어진 과제를 주어진 시간 내 잘 수행한다.
  8. 잘못을 지적했을 때 쉽게 소심해 지거나 울지 않는다.
  9. 자신감이 있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한다.
  10.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고, 다른 사람의 활동에도 관심을 갖는 편이다.
- 

아동의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상황을 비디오로 녹화한 후 행동 관찰을 기록하였다. 관찰 기록은 J대학교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미술치료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 2명과 연구자가 평가할 아동의 행동을 정의한 후 관찰자 간 신뢰도가 90%가 될 때까지 훈련하여, 매 1분 간격으로 총 20회를 관찰하였으며 분이 바뀔 때는 아동의 행동이 위축인지 친사회적인지를 관찰 기록하였다. 총 10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로 채점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점수 50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축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단계별 대상자의 반응 및 행동관찰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매 회기마다 미술활동 상황에서 대상자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위축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고 행동변화의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 5)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평가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마친 후 대상아동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자신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가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한 소감을 대상자 스스로 기록하게 한 후 대상자의 행동변화를 알아보았다. 평가지 구성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자기표현, 자신감 및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내용 4문항으로 “매우 도움이 됨”,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이 안 됨”, “전혀 도움이 안 됨”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적 분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와 회기 중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 활동의 선택과 자기이해에 대한 생각을 기술하는 3문항은 질적 분석을 할 수 있게 하여 총 7문항으로 프로그램내용에 맞게 구성하였다.

### 4. 처치도구 :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2014년 1월 21일부터 2014년 3월 14일까지 1회기 당 50분씩, 주 2회, 총 12회기 그룹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장소는 아동들이 편안하고 익숙한 장소인 지역아동센터 내 조용한 학습실에서 이루어졌다.

#### 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진행 단계별 목표

연구자는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감소를 위한 12회기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2회기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는 자신의 억압된 감정의 표출 및 긴장완화와 감정정화의 긍정적 경험, 자신과 타인의 이해와 수용,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자기표현 및 자존감의 향상이다. 연구에 사용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성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정여주(2003)에 의하면 초기·중기·후기 단계로 설명하고 있고, Wadeson(1987)은 미술치료 단계를 초기·중기·종결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이 연구에 적용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초기·중기·종결 단계로 진행하였다.

초기단계(1회기~4회기): 초기단계는 신뢰형성기로 신뢰형성 및 자신과 구성원들 간 서로 알기, 재료를 탐색하고 불안과 긴장을 이완하고 감정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중기단계(5회기~7회기, 8회기~10회기): 중기단계는 표출기 및 변화기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집단원간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자신의 감정표현과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함께 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집단원의 고통이나 불안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공감과 지지와 수용의 자세로 자신을 둘러싼 사회 환경 속에서 대인 관계적 불안을 미술작품으로 표현하게 하여 긴장을 이완함으로써 안전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종결단계(11회기~12회기): 종결단계는 자아확립단계로 공동 작업을 통한 집단의 소통과 역동성을 확인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서로의 의견이 조율되고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 만족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집단원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관계 경험의 기회를 늘리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이별을 받아들이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을 마치는 마지막 12회기에는 자신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액자에 상장으로 만들어 대상자 각자가 선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성취감과 자기존중감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의 미술치료 활동을 마무리 한다.

## 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활동과정

이 연구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총 12회기로 매회 50분의 활동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나 회기별로 유동적으로 이루어졌다. 매 회기는 준비활동, 미술 활동, 작품 소개하기 및 소감 나누기, 정리 순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준비활동의 소요시간은 5-10분 정도이며, 명상음악으로 미술활동을 위한 환경조성을 하면서 연구자와 대상자들의 인사를 나누는 다음, 각 회기별 주제와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미술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기 유발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둘째, 미술활동으로 소요 시간은 30-35분 정도로 이루어졌고, 미술재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작품소개하고 소감을 나누는 활동으로 소요시간은 10분정도로 한사람씩 원하는 사람 순으로 작품을 소개하고 활동과정의 소감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다 같이 정리를 하고 마무리시간을 가졌다.

### 3)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성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성은 연구자가 관련 논문(박지현, 주현숙, 2010; 이영숙, 2013)과 미술치료전문가 1인의 자문을 받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위축행동을 보이는 대상자들의 위축행동 감소를 위해 비언어적 표현방법인 미술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대상아동들이 집단 안에서 자기 탐색과 이해 및 수용, 타인과의 상호작용, 자기표현과 감정표출, 타인과의 협력과 배려를 통한 성취감 경험과 자신감 및 자존감 향상을 목표로 구성하였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의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내용

단 계	단계별 목표	회 기	활동 주제	활동내용	활동목적 및 기대효과	준비물
초 기	친 밀 감 형성, 자	1	나는 누구일 까요? (자기	집단규칙을 정하고 서 약서를 작성한 후 명함	친밀감 및 신뢰감 형성, 자기표현과	명찰, 색지, 싸인펜, 색연

기 탐 색			소개하기)	만들기 활동을 한다.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를 떠올린 후 그림을 그리고 나서 한사람씩 돌아가며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자기 소개하기.	필, 서약서
		2	그리고 싶은 것을 맘껏 그려 보아요(자유화 그리기)	명상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편안하게하고 생각을 집중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그림의 제목을 부친 후 한사람씩 돌아가며 그림을 설명한다.	긴장이완, 자기탐색과 자기표현	그림 도구 (도화지, 색연필, 크레파스, 싸인펜 등)
		3	내 마음엔 무엇이 숨겨있을까요?(컬러 스크래치 난화)	명상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생각을 집중한다. 크레파스로 색칠을 한 후 그 위에 검은 색 크레파스로 덧칠한 후 이쑤시개 등으로 난화를 그린다.	내면의 심상표현, 미술활동의 즐거움과 감정정화 경험, 동기부여.	도화지, 크레파스, 이쑤시개
		4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은? (플라주)	자신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원하는 것을 잡지에서 오려붙인 후 제목을 정하고 발표한다.	자기표현과 자기 이해 및 타인 이해	잡지, 풀, 가위, 도화지, 색연필, 싸인펜
중 기	자 기 와 타 인 인 식 및 변 화 단 계	5	나의 그림에 친구 마음이 더해지면... (돌려그리기)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떠올린 후, 그림 하나를 그린 후 옆 사람에게 돌려주어 차례대로 돌아가며 그리게 한 후 그림을 완성한다. 완성된 그림이 자신이 생각한 그림과 어떻게 다른 지 등 활동 소감을 나눈다.	상호작용 및 자기 이해와 수용.	색연필, 싸인펜, 크레파스, 도화지
		6	오물조물 흙으로 빚은 내 모습(점토 자화상)인	점토를 만지면서 촉감을 느껴보고 감정이완을 한다. 그런 다음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본다.	자기 인식, 자신과 타인 이해 및 존중감 경험.	지점토, 조각도구

		7	이젠 나도 변화하고 싶어요(물감 풀 그림)	도화지에 물풀을 풀고 손으로 물감을 찍어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자유롭게 그린다.	긴장이완, 감정표출과 감정조절, 변화의 경험과 수용.	도화지, 풀, 물감
		8	난 이럴 땐 정말 속상해요(가면 역할극)	요즘의 기분을 떠올려 본 후, 얼굴 표정을 그림으로 그린다. 가면을 쓰고 역할극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의사소통 기술을 배운다.	자신 감정 이해 및 표현, 상대방과 상호작용, 효과적 의사소통의 경험.	기분표정, 도화지, 고무줄, 색연필, 크레파스.
		9	우린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요(휴지통 만들기)	종이박스를 사용하여 함께 휴지통을 만든다. 그런 다음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던 상황을 떠올리고 신문지를 찢으며 풀어본다. 신문지를 몽쳐 버리고 싶은 감정을 쓴 후 종이에 싸서 휴지통에 버린다.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협동의 중요성을 안다. 스트레스를 푸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알고, 긍정적으로 풀 수 있다.	종이상자, 색종이, 가위, 풀, 신문지
		10	둘이 하나 되어(짜과 그림 그리기)	짜과 협동하여 그림을 그린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을 통해 친밀감과 사회성을 향상하는 방법을 안다.	4절지, 그림 도구
		11	나의 간절한 소망은...(소망 나무)	자기가 바라는 소망(자신의 꿈이나 바라는 소망)을 뿌리, 줄기, 열매로 그려본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자존감 향상.	도화지, 그림 도구
		12	칭찬해 주세요(상장, 선물 주기)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잘 마친 자신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사람, 꿈, 낱말 등)을 액자에 그려서 나만의 소중한 선물을 만들어 본다.	자신감과 긍정적 자아상 형성.	액자, 그림 도구
		11	나의 간절한 소망은...(소망 나무)	자기가 바라는 소망(자신의 꿈이나 바라는 소망)을 뿌리, 줄기, 열매로 그려본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자존감 향상.	도화지, 그림 도구
		12	칭찬해 주세요(상장, 선물 주기)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잘 마친 자신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사람, 꿈, 낱말 등)을 액자에 그려서 나만의 소중한 선물을 만들어 본다.	자신감과 긍정적 자아상 형성.	액자, 그림 도구
		11	나의 간절한 소망은...(소망 나무)	자기가 바라는 소망(자신의 꿈이나 바라는 소망)을 뿌리, 줄기, 열매로 그려본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자존감 향상.	도화지, 그림 도구
		12	칭찬해 주세요(상장, 선물 주기)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잘 마친 자신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사람, 꿈, 낱말 등)을 액자에 그려서 나만의 소중한 선물을 만들어 본다.	자신감과 긍정적 자아상 형성.	액자, 그림 도구

## 5. 자료 분석

### 1) 양적 분석

연구문제 1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위축아동의 위축행동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K-CBCL(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검사를 사전, 사후로 나누어 실시한 후 대상자 별 위축척도 T점수 변화를 표와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 2) 질적 분석

집단미술치료가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와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문제 1의 집단미술치료가 위축아동의 위축행동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적 집-나무-사람(KHTP) 그림검사를 사전, 사후에 실시하여 아동의 그림 특징과 반응 및 태도를 관찰·기록하여 위축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질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2의 집단미술치료의 단계별 회기진행에 따라 위축아동의 위축과 친사회적 행동 패턴은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의 단계별 회기 활동 상황에서의 대상자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기록지에 기록한 후, 대상아동의 위축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 과정을 질적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3의 집단미술치료가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참여한 위축아동의 특성에 따라 어떤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회기진행 활동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상자의 반응 및 행동관찰과 집단치료 프로그램 활동 후 평가지를 분석하여 대상자의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에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 IV.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위축행동을 보이는 위축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위축행동 감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2회기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종결한 후에 아동에게는 동적 집-나무-사람(KHTP)을,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에게는 아동에 대한 교사용 K-CBCL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 1. 양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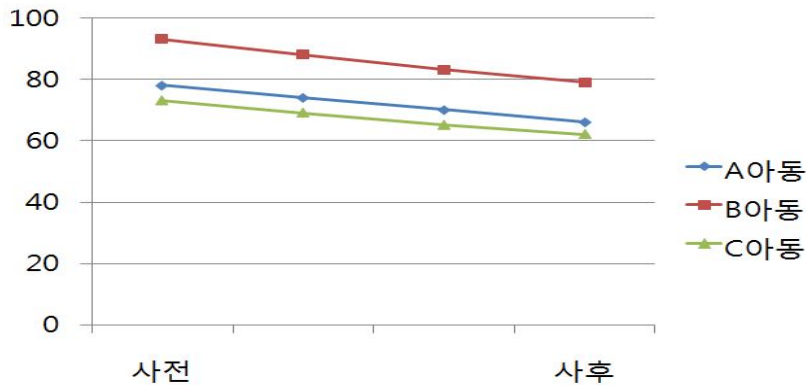
#### 1) 위축척도에서의 변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위축아동의 위축척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의 위축척도 문항에 대한 검사를 사전과 사후에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원점수를 T점수로 환산한 결과는 <표 IV-5>와 같고 이를 그래프로 제시한 것은 [그림 IV-1] 과 같다.

<표 IV-5> 아동의 위축척도 점수변화

	A아동	B아동	C아동
사전검사			
위축척도 T점수(원점수)	78 (11)	93 (14)	73 (8)
사후검사			
위축척도 T점수(원점수)	66 (7)	79 (10)	62 (4)





[그림 IV-1] K-CBCL에 의한 위축척도 T점수의 변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대상자 A, B, C아동의 위축점수는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환산한 T점수가 각각 78T, 93T, 73T점수로 나타났다. 세 아동 모두가 임상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B아동이 93T로 가장 높았다. 12회기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대상자의 위축점수는 각각 66T, 79T, 62T로 모든 대상자들의 점수가 감소하였으며 A아동과 C아동은 임상수준에서 일반수준으로, B아동은 임상 수준이기는 하나 A와 C아동의 점수 감소폭이 12T와 9T보다 더 큰 14T로 B아동의 점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 질적 변화



### 1) 동적 집-나무-사람(KHTP) 사전·사후 검사 변화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사전·사후에 아동에게 그림검사를 실시하여 변화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KHTP 검사는 적응수준, 인지적 성숙도, 정서 상태, 욕구나 내적 갈등, 기질적 손상유무 등을 파악하는 도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위축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그림상의 변화와 내용, 크기, 위치, 표정, 특징 및 태도 등을 살펴보고 그림의 해석은 김동연 공저(2006)의 『HTP와 KHTP 심리진단법』, 신민섭 공저(2003)



의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를 참고하였고, 미술치료전문가 1인의 슈퍼 비전을 받아 분석하였다. 각 대상자의 동적 집-나무-사람(KHTP)검사의 사전·사후 검사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A아동

구분	사전	사후
그림		
형식적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요시간은 50초.</li> <li>-사람-나무- 집 순서로 그림.</li> <li>-그림이 용지의 하단에 그려짐.</li> <li>-필압은 아주 약하고 희미함.</li> <li>-절단과 생략, 기울어짐(집과 나무,사람)</li> <li>-선 연결이 길게 이어짐.</li> <li>-형태가 분명하지 않고 뭉쳐짐.</li> <li>-그림의 전체적 인상은 작고 단순하며 미숙하게 표현 됨.</li> <li>-아동의 검사 시 태도는 처음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한참동안 눈치를 살피며 경계하다가 급하게 대충 그리는 모습을 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요시간은 3분 35초.</li> <li>-사람-집-나무 순서로 그림.</li> <li>-그림의 위치가 사전검사에 비해 약간 위쪽으로 올라감.</li> <li>-필압이 사전에 비해 좀 더 강하고 선명함.</li> <li>-그림의 절단이 없음.</li> <li>-형태가 분명해짐.</li> <li>-전체적인 그림의 인상은 사전에 비해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밝고 동적으로 표현 됨.</li> <li>-아동은 사전검사 때와는 아주 다른 태도로 신중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임.</li> </ul>
내용적 분석	<p>집과 나무의 질문에는 “모르는데” 라고 대답을 하였고, 사람은 “나무를 때리는 일을 하는 로봇” 이라고 말함. 벽과 문이 없는 지붕만 기울게 그려진 집은 자아기능의 약함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표현된 것으로 보이고, 가지가 없는 열쇠구멍모양의 단순한 나무의 그림은 나이에 비해 미숙하고 상호작용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때리는 로봇의 사람은 형태가 분명하지 않고 매우 작게 그려져 혼란과 불안으로 인한 위축된 느낌이 표현된 것으로 보임. 전체적으로 그림이 용지의 하단에 절단과 생략으로 작게 표현된 것은 아동의 우울과 억압 등으로 위축된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보임.</p>	<p>“나무는 늙어서 죽었다가 갑자기 해가 나무위에 떨어져 다시 살아나 해와 함께 살고 있다” 고 했고, 집에는 “육을 잘하는 한 살 된 아기 귀신이 살고 있다” 고 했다. 밝고 빛나는 해의 그림은 아동의 긍정적인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보이고, 그림의 크기가 사전에 비해 조금 더 커져 있고 위치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 간 것은 우울과 위축감이 낮아진 표현으로 보임. 또한 형태가 좀 더 분명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은 위축감이 낮아짐으로 인하여 대인관계에서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표현된 것으로 보임.</p>



관찰 및 해석	<p>아동은 사전 검사 시 아주 급하게 대충 성의 없이 그림을 그렸던 모습과는 다르게 사후 검사에서는 신중하고 차분한 태도로 달라진 행동이 관찰됨. 그림의 표현에서도 사후 그림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림이 생략되거나 절단된 부분이 없고, 그림의 위치도 약간 위쪽으로 올라갔으며, 집의 창문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고, 사람과 나무의 모습이 사전에 비해 형태가 분명하고 온전하게, 크게 그림으로서 위축감이 낮아지고 자기조절감이 향상된 것으로 보임. 또한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 향상된 표현으로 보임.</p>
---------------	-----------------------------------------------------------------------------------------------------------------------------------------------------------------------------------------------------------------------------------------------------------------------------------------

(2) 대상자: B아동

구분	사전	사후
그림		
형식적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요시간은 5분.</li> <li>-나무-집-사람 순서로 그림</li> <li>-그림의 위치가 용지 하단 쪽에 그려짐.</li> <li>-필압이 약하고 강한 부분이 보임.</li> <li>-그림의 절단과 생략이 있음(사람 그림)</li> <li>-지우개 사용(사람과 나무그림)</li> <li>-그림의 전체적 인상은 아래쪽으로 그려져 우울하고 그림들이 개별적으로 표현됨.</li> <li>-수줍은 태도가 많이 보이고 물어보는 것을 어려워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요시간은 3분 38초.</li> <li>-사람-집-나무순서로 그림.</li> <li>-그림의 위치가 사전검사에 비해 약간 위쪽으로 올라감.</li> <li>-필압이 일정함.</li> <li>-그림의 절단과 생략됨이 없음.</li> <li>-지우개를 사용하지 않음.</li> <li>-사전그림에 비해 안정감이 있고 사람이 집 쪽을 향하여 서 있어 역동적으로 표현됨.</li> <li>-편안한 태도로 자신 있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임.</li> </ul>
내용적 분석	<p>집의 기반부분의 절단은 가족에 대한 불편한 마음의 표현으로 보이고, 문에 비해 작은 창문과 나무의 짧고 뾰족한 가지는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표현된 것으로 보임. 지나치게 크고 굵은 줄기의 나무 그림은 불안함으로 인한 충동성의 표현으로 보임. 팔 벌린 두 사람의 그림은 아동이 자기 방어적 욕구가 표현된 것으로 보이고, 눈을 감은 옆모습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수줍어 회피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보임. 또한 짧은 팔과 긴 다리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불안과 위축된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보임.</p>	<p>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허전하다”고 하여 더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라고 하자 지면과 꽃을 그림. 그리고 나서 기분을 몰으니 “편안하다”고 말함. 집에는 가족들이 살고 있고 분위기는 안 좋다고 했다가 좋다고 말을 바꿈. 사전 그림과 다르게 각 그림의 크기가 비슷하고 약간 위쪽으로 그림을 그려 그림이 안정적으로 표현됨. 사전 그림에서 부분적으로 그려진 지면이 사후그림에서는 그림을 전체적으로 다 그려 아동의 심리적 안정의 욕구가 표현된 것으로 보이며 나무를 외면하고 선 눈감은 사람의 옆모습은 수줍음의 표현으로 보임.</p>

관찰 및 해석	<p>사전검사에서 아동은 거의 말이 없었고 사람을 그리면서 연구자에게 혼잣말 하듯 작은 목소리로 “남자, 여자 다 그려도 되요?” 라고 매우 수줍게 물어보는 모습이 관찰됨. 프로그램 활동 중에는 친구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서 활동을 하는 모습이 초기에 자주 관찰되었으나 미술활동을 좋아하여 점차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신 있는 모습이 관찰됨. 사후검사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잘 표현하였고, 그림의 전체적인 인상이 안정적으로 표현 되어 안정된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보임.</p>
---------------	-------------------------------------------------------------------------------------------------------------------------------------------------------------------------------------------------------------------------------------------------------------------------------

(3) 대상자: C아동

구분	사전	사후
그림		
형식적 분석	<p>-소요시간은 2분 25초. -집-나무-사람순서로 그림. -그림의 위치는 용지 하단에 그려짐. -필압이 약하고 강한 부분이 보임. -그림의 절단과 축소, 생략됨(집, 나무, 사람그림). -그림의 전체적인 인상은 어둡고 우울해 보임.</p>	<p>-소요시간은 3분10초. -집-나무-사람순서로 그림. -그림의 위치가 사전에 비해 위쪽으로 올라감. -사전에 비해 필압이 약하고 강한 부분이 더 심하고, 음영이 표현된 부분이 보임. -그림의 확대와 축소, 절단, 강조의 표현. -기울기와 부가물의 표현. -그림의 전체적 인상이 충동적이고 산만하게 표현됨.</p>
내용적 분석	<p>“해를 더 그리고 싶다” 고 하였고, “모르는 사람이 집을 샀다” 고 함. 자신이 나무에 물을 주고 있고, 나무가 잘 자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함. 더 그리고 싶은 그림으로 꽃과 해, 구름을 더 그림. 집 하단부분의 절단과 사람의 발의 생략으로 가정환경에 대한 불안과 갈등이 표현된 것으로 보이고, 나무의 지나치게 굵은 줄기는 자아가 약하여 충동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임. 작은 사람의 그림은 자신감의 부족으로 인한 위축된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보이고, 주먹 권 손과 뭉툭한 발은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보임.</p>	<p>“두 마리의 엄마, 아빠 새가 나무 안에 있는 등지에서 먹이를 기다리는 아기 새 먹이를 구하기 위해 날아가고 있다” 고 함. 그물 모양의 지붕이 크게 확대된 기울어진 집 그림은 환경에 대한 불안과 좌절, 갈등으로 인한 위축되고 억압되었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으로 보임. 또한 집의 크기에 비해 문과 창문이 작게 그려져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표현된 것으로 보임. 등지가 있는 나무 그림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싶은 아동의 내면의 욕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들쭉 찢을 이루고 있는 구름과 새의 그림은 의존적 욕구가 표현된 것으로 보임.</p>

관찰 및 해석	사전 그림에 비해 크기가 커진 사람은 얼굴이 크고 강조된 두 눈과 더 동적으로 표현되어 대인관계에서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표현된 것으로 보이고, 그림의 확대와 부가물의 표현은 가정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로인해 심리적인 안정, 관심과 들뜸을 받고자 하는 욕구좌절이 적극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임으로써 사전 검사에서 위축되어 표현되지 않았던 감정들이 사후그림에서 표현되어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	-------------------------------------------------------------------------------------------------------------------------------------------------------------------------------------------------------------------------------------

동적 집-나무-사람(KHTP) 검사의 사전·사후 그림에서 필압이 약하거나 그림의 절단과 생략된 것은 대인관계의 불편함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위축된 표현으로 볼 수 있고, 다른 그림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된 그림은 통찰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옆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폐쇄적인 사고나 자기애가 강한 사람으로 볼 수 있으며, 그림을 작게 그린 것은 에너지 수준이 낮고 자신감이 부족하여 위축된 자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은 자아의 강함과 관련된 것으로 약하고 불규칙하게 이어진 선은 자기통제가 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이 수동적인 태도와 관련될 수 있다. 코의 생략과 머리를 질게 강조한 것은 수줍음이 많은 성향으로 볼 수 있고 움직이지 않고 서있는 태도는 방어적인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Machover, 1949; 김동연 외, 2006 재인용).

이와 같이 관련 연구와 이론을 근거로 대상자들의 그림을 분석한 결과, 사후에서는 사전에 비해 고른 필압과 사전에서 생략됐던 창문이 추가되거나 나무의 크기와 굵기가 안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어 환경적인 접촉을 원하는 욕구가 표현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사람의 옆모습과 질은 머리색은 회피와 수줍음이 남아있으나 웃는 모습과 지면을 그려 전체적인 구도가 안정적으로 표현된 것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힘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림이 사전에 비해 커진 것은 에너지 수준이 많아지고 위축적인 경향이 해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질적 분석도구인 동적 집-나무-사람(KHTP) 검사의 사전·사후 변화는 양적인 검사에서 알 수 없었던 대상자들의 내면의 정서에도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연구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대상아동들의 위축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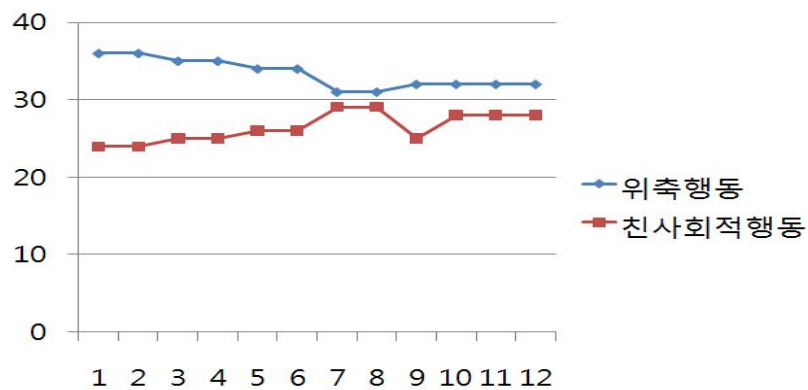
2)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변화

집단미술치료가 위축아동의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상아동의 위축행동과 친사회적 행동 관찰에 따른 행동 평정은 매 회기 미술치료 활동 상황을 연구자와 보조 관찰자가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점수는 최저 점수 10점에서 최고 점수 50점까지 분포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축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A아동의 회기별 위축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점수는 <표 IV-6>과 같고 이를 그래프로 제시한 것은 [그림 IV-2]와 같다.

<표 IV-6> A아동의 회기별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점수 변화

미술치료 단계	신뢰형성기				표출기			변화기			통합기	
	회기 1	회기 2	회기 3	회기 4	회기 5	회기 6	회기 7	회기 8	회기 9	회기 10	회기 11	회기 12
위축행동	36	36	35	35	34	34	31	31	32	32	32	32
친사회적 행동	24	24	25	25	26	26	29	29	25	28	28	28



[그림 IV-2] A아동의 회기별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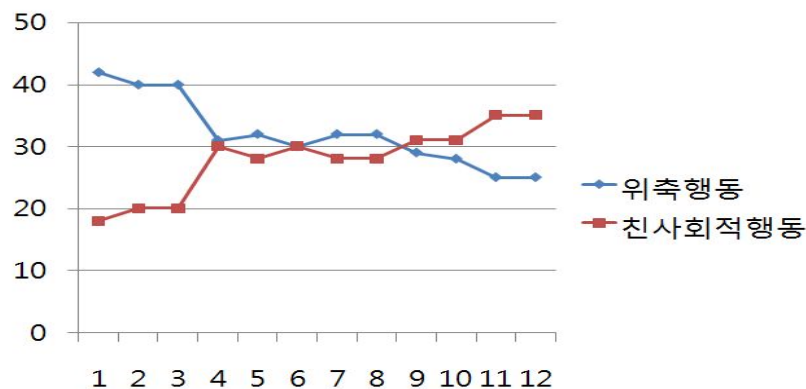
<표 IV-6>과 [그림 IV-2]에서 A아동의 회기별 위축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점수변화를 살펴보면, 1회기에서 8회기까지 관찰된 위축행동 점수는 36점에서 31점으로 점점 감소되다가 9회기부터는 위축행동 평정 척도가 1점 높게

나타났으나 12회기까지 같은 정도로 유지함으로써 미술활동 전체 회기로 살펴볼 때 위축행동은 36점에서 32점으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친사회적 행동은 1회기에서 8회기까지 24점에서 29점으로 점점 증가하다가 9회기에 25점으로 감소했으나 10회기에서 12회기까지 유지되어 친사회적 행동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변화를 볼 수 있지만 전체 활동에서는 24점에서 28점으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B아동에 대한 회기별 위축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점수는 <표 IV-7>과 같고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IV-3]과 같다.

<표 IV-7> B아동의 회기별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점수변화

미술치료 단계	신뢰형성기				표출기			변화기			통합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위축행동	42	40	40	31	32	30	32	32	29	28	25	25
친사회적 행동	18	20	20	30	28	30	28	28	31	31	35	35



[그림 IV-3] B아동의 회기별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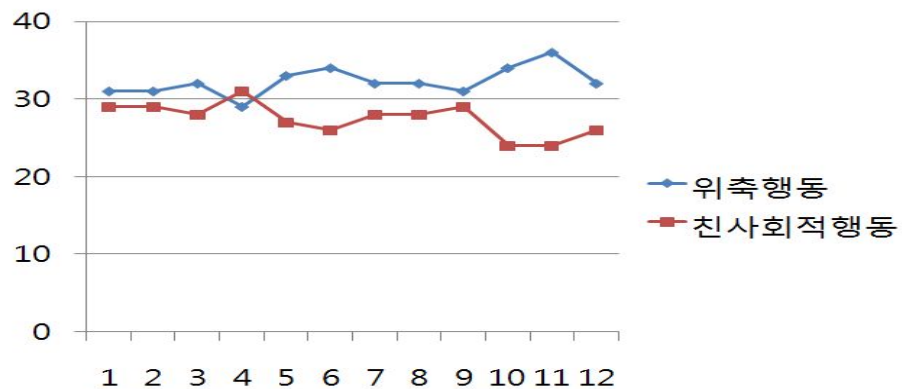
<표 IV-7>과 [그림 IV-3]에서 B아동의 회기별 위축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점수변화를 살펴보면, B아동은 1회기에서 12회기까지 위축행동 점수가 45점에서 34점으로 꾸준히 감소하였고, 친사회적 행동도 18점에서 35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아동의 위축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는

A아동과 C아동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C아동에 대한 회기별 위축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점수는 <표 IV-8>과 같고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IV-4]와 같다.

<표 IV-8> C아동의 회기별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점수 변화

미술치료 단계	신뢰형성기				표출기			변화기			통합기	
	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위축행동	31	31	32	29	33	34	32	32	31	34	36	32
친사회적 행동	29	29	28	31	27	26	28	28	29	24	24	26



[그림 IV-4] C아동의 회기별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변화

<표 IV-8>과 [그림 IV-4]에서 C아동의 회기별 위축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 점수변화를 살펴보면, C아동의 위축행동 점수가 1회기에서 4회기까지는 31점에서 29점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5회기에서 12회기까지 위축행동 점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위축행동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1회기에서 마무리 회기인 12회기의 위축점수는 31점에서 32점으로 1점 정도로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친사회적 행동은 위축행동과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이면서 친사회적 행동 점수는 29점에서 26점으로 3점 정도로 위축행동보다 약간 더 큰 변화의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단계별 대상자의 반응 및 행동관찰 변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대상자들은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첫 회기 활동에는 서로 어색함과 경계하는 모습으로 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그램의 초기단계에서 자신을 탐색하고 조금씩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중기에 접어들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사람의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 등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종결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종결에 대한 아쉬움과 자신에 대해 뿌듯함을 표현하며 자신감이 향상된 모습이 관찰되었다.

좀 더 자세한 회기별 대상자들의 소감과 관찰 내용은 <표 IV-9>와 같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의 매 회기 활동 후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본 집단미술치료가 집단 안에서의 감정표현과 상호작용의 경험 등을 통해 위축 행동을 감소시키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9> 회기별 대상자들의 반응 및 행동관찰 내용

단계	대상자들의 반응	행동관찰 내용
초기 (1-4회기)	-잘 모르겠다. -재미있었다.	-초기라 낯설어 하고 어색해하며 서로 눈치를 보다가 조금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선뜻 활동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관찰하기도 함.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데 부담스러워하며 주저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산만한 행동을 하거나 자기활동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나무에 물을 주는 그림을 그리니까 기분이 좋아졌다. -잘 모르겠다.	-함께하며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활동한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 어색해 하면서도 조금씩 즐거운 듯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모습이 관찰됨. -A아동은 첫 회기보다 표정이 다소 밝아 보였으나 가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과 언어사용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보임. B아동은 다른 아동이 활동을 다 마칠 때 까지도

		<p>활동을 하지 못해 초조해 하다 울먹이며 불안한 모습을 보여 연구자가 괜찮다며 도화지 반을 접어 테두리를 그려주니 그때서야 그림을 빠르게 그려 완성하고 나서 편안한 모습을 보임.</p>
	<p>-재미있고 신기하다. -검정 파스넛으로 그림을 덧칠하니 재미있고 새로운 그림이 되어 신기하다.</p>	<p>-A아동은 한참동안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아동들이 하는 것만 지켜보다가 검정색으로 덧칠을 하면서는 갑자기 힘을 내며 파스넛 재료에 흥미를 보였다. 작품의 제목은 붙이지 못함. -B아동은 미술활동을 재미있어 하지만 자신의 활동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감을 가장먼저 큰소리로 말을 하여 자신있는 모습이 관찰됨. -C아동은 밝은 표정으로 가끔씩 다른 아동들과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활동 시에도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하는 모습이 지난주와 다르게 비교적 활발해진 모습이 관찰됨.</p>
	<p>-내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됐다. -오리는 것이 재미있고 쉬웠다. -좋았다.</p>	<p>-A아동은 그림을 그리는 활동보다 잡지를 이용한 풀라쥬 활동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모습이 관찰됨. -B아동은 싫어하는 것을 먼저 찾아 오렸으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관찰됨. -C아동은 많은 것을 오려 앞뒷면을 사용해 붙였고 말을 하면서 위축된 모습이 관찰됨.</p>
<p>중기 (5-10회기)</p>	<p>-내가 그리려고 했던 그림과 달라서 이상하다. -친구들이 그림을 그려주니까 좋다. -이상하지만 괜찮다.</p>	<p>-B아동은 이전 회기까지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발표 시에 목소리가 작아 아주 위축 되어 보였으나 회기가 진행되면서 다른 아동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어울려 활동하는 모습과 자기표현에서도 조금은 수줍어하면서도 밝은 표정과 또박또박 말하는 자신 있는 모습이 관찰됨.</p>
	<p>-흙을 만지니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좋았다. -만들기가 어렵지만 재미있다. -우리가족을 만들어서 좋았다.</p>	<p>-처음에 아동들은 점토를 만지면서 "으똥 같다"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호기심으로 만지작거리며 장난스럽게 재미 있어하는 모습이 관찰됨.</p>

<p>-유화플감이 손에 묻어서 싫지만 풀에 그림을 그리니까 신기하다.</p> <p>-손에 풀과 물감이 묻어 신경 쓰인다.</p>	<p>-A아동은 조금 늦게 도착해서 다른 아동의 활동만 지켜보면서 하지 않았다.</p> <p>-B와 C아동도 기운이 없고 피곤해 보였으나 조금씩 진행되는 동안 활동을 재미있어하며 집중하였고, 긴장이 풀어지고 웃기도 하는 등 편안해진 모습이 관찰됨.</p>
<p>-가면을 쓰고 역할극으로 슬픈 감정을 말로 표현하니 시원하고 좋았다.</p> <p>-친구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걱정됐는데 그림을 그리다보니 편안해졌다.</p>	<p>-A아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함.</p> <p>-B아동은 어제 언니가 머리를 잡고 때려 슬펐다며 처음에 말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함.</p> <p>-C아동은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걱정하며 얼굴을 숙이고 책상에 엎드렸다가 마지못해 활동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며 짜증을 내기도 함.</p>
<p>-신문을 찢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알았다.</p> <p>-신문지 조각들을 뭉치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니 치우는 것이 쉬웠다.</p> <p>-다 같이 쓰레기통을 만들어 좋았다.</p>	<p>-처음에 아동들은 신문지를 찢는 것을 어색해하며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 관찰 됨.</p> <p>-연구자가 먼저 신문지를 가지고 찢자 A아동이 따라 하기 시작하고 B와 C아동 차례로 찢기 시작함.</p> <p>-신문을 뭉쳐 종이에 부정적인 감정을 쓰지 않고 그대로 휴지통에 버리기도 함.</p> <p>-B와 C아동은 색종이를 예쁜 모양으로 올려서 휴지통을 꾸미며 즐겁게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나 A아동은 혼자 재미있어하며 색종이를 통째로 붙이는 모습이 관찰됨.</p>
<p>-짝과 같이 그림을 그리니 정말 좋았다.</p> <p>-서로 그리고 싶은 것을 물어보면서 그리는 것이 좋았고 그림도 더 잘 그려진 것 같다.</p>	<p>-B와C아동은 짝이 되어 그림을 먼저 그리기 시작했고, 그리면서 서로 생각을 물어보며 친밀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관찰됨.</p> <p>파스텔과 크레파스와 연필 등의 여러 재료를 사용하기도 함.</p> <p>-A아동은 혼자 대충 그림을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는 모습이 관찰됨. 연구자가 짝이 되어 무엇을 그렸는지 물으니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거라고 하여 덧붙여 그리니 자신</p>

		도 따라서 더 그려 용지 전체를 그림으로 표현함.
후기 (11-12회 기)	-나의 꿈나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되고 싶은 것이 많아졌다. -나무의 색이 멋지게 보인다.	-아동들은 자신이 되고 싶은 꿈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잘 안 난다고 하며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다가 조금씩 그리기 시작하였고, 그림을 다 마칠 때까지 정성껏 그리는 모습이 관찰됨. -A아동은 파스넛으로 그림을 그린 후, “눈이 많은 나무”라는 이름을 붙였고, 자신을 감시하는 눈이라고 함.
	-종결회기라 좋기도 하고 아쉽다. -상장을 예쁘게 꾸민 액자를 만들어 집에 가지고 가니 좋다. -그림을 그려 액자에 넣고 보니 멋지다.	-아동들 모두 활동에 집중하여 정성껏 작품을 만드는 모습이 관찰됨. -마지막회기라 아쉬워하면서도 자신에 대해 뿌듯함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말로 잘 표현하며 긍정적인 모습이 관찰됨.

#### 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평가지 분석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을 마친 후 평가지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한 소감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하였다.

대상자들의 응답한 평가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친구들과 함께 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2명), 도움이 되었다(1명)”,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2명), 도움이 되었다(1명)”, “자신감을 갖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2명), 도움이 되었다(1명)”,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2명), 보통이다(1명)”, “집단미술치료를 마치며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격려나 각오의 말”은 “미술치료를 참 잘했어”, “미술치료가 재미있다”라고 표현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10회기 짝과 그림그리기”와 “12회기 상장 만들기”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은 “예전에는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 “말을 잘 하지 못했는데 잘 한다”, “자신이 미웠다”에서 “자신이 좋다”는 긍정적 변화를 밝혔다.

## V. 논의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위축된 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와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도 소재 J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1-3학년 아동 중 위축행동을 보이는 위축아동 3명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문제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가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K-CBCL 위축 척도의 사전 점수에서 세 아동 모두 임상수준인 표준점수 70T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사후에는 A, C 아동은 66T와 62T로 정상수준으로 감소하였고, B 아동도 93T에서 79T로 임상수준이나 A와 C 아동에 비해 점수 변화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적 집-나무-사람(KHTP) 사전·사후 그림검사에서 집과 나무, 사람의 크기와 위치, 형태, 선의 질, 전체적인 그림의 인상과 역동성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그림의 크기는 용지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작게 그려졌던 것에 비해 적당한 크기로 변화가 있었으며, 그림의 위치도 용지 하단에서 상단 쪽으로 그려진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그림의 절단과 생략된 형태에서 온전한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선의 모양과 강도에서도 불규칙한 선에서 일정한 선으로 변화가 있었고, 전체적인 그림의 인상과 역동성에서도 불안한 느낌에서 안정된 느낌으로, 의존적, 수동적인 모습에서 적극적, 활동적인 모습으로 표현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집단미술치료가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로서 위축아동들에게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위축점수가 감소하였다는 허경화(2002), 전원재(2006), 윤정관(200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둘째, 단계별 회기진행에 따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활동상황에서 위축아동의 위축과 친사회적 행동 패턴이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자들의 위축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행동 평정 척도 기록지

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단계(1-4회기), 중기단계(5-10회기), 종결단계(11-12회기)로 나누어 위축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A아동의 위축행동은 35.5점에서 32.3점과 32.0점으로 점차 감소된 반면, 친사회적행동은 24.5점에서 27.1점과 28.0점으로 점차 증가되었다. B아동의 경우도, 위축행동은 38.2점에서 30.5점과 25.0점으로 크게 감소되었고, 친사회적행동은 22.0점에서 29.3점과 32.0점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반면에 C아동의 위축행동은 30.7점에서 32.6점과 34.0점으로 점점 증가되었고, 친사회적행동은 29.2점과 22.5점과 25.0점으로 초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C아동의 경우는 아동이 초기에 억압되었던 부정적 감정들이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부정적인 행동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위축척도 사전점수가 73T에서 사후점수가 62T로 감소한 것을 볼 때 위축되어 억압된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미술활동을 통해 표출되어 긍정적으로 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집단미술치료가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 간에 미치는 효과는 참여한 위축 아동의 특성에 따라 어떤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위축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의 단계별 변화를 관찰하여 행동 변화의 결정적 요인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A아동은 3회기까지는 다른 아동들이 하는 것을 관찰하며 자주 눈치를 살피는 위축행동이 관찰되었지만 4회기 ‘풀라쥬’ 활동을 하면서부터 활동에 흥미를 보이며 서서히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아동들과도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관찰되었다. 이는 아동 자신이 비교적 잘 할 수 있고 다루기 쉬운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Malchoid(2000)가 말하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미술활동을 함으로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B아동은 첫 회기부터 활동에 집중하여 잘 하였으나 작업시간이 다른 아동에 비해 오래 걸리고 수줍은 위축된 행동이 자주 관찰됐다. 그러다가 3회기 ‘스크래치난화’ 기법이 아동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발표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관찰되었다. 이는 아동의 자기작품을 통한 성취감이 위축행동을 변화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백술애(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C아동 경우는 크레파스나 색연필을 사용하다가 파스넛을

사용하고 나서 매우 좋아하였으며, 7회기 ‘물풀로 물감 찍기’의 기법을 통하여 억압되었던 부정적 감정들이 표출되면서 위축행동이 더 잘 관찰 되었다. 따라서 아동의 위축행동의 결정적인 변화요인으로 다양한 미술활동의 경험이 자기표현과 감정정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 활동 평가지 분석 결과에서도 A아동의 경우,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데 도움이 되어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비해 참여한 후에는 “말을 한다”는 긍정적 진술을 하여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B아동의 경우에도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평가지 4문항에서 모두 “매우 도움이 된다”로 기록하였고,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비해 참여 후에 달라진 점으로 “말을 잘 하지 못했다”가 “말을 잘 한다”고 진술하여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C아동 또한 B아동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활동 평가지 4문항에서 모두 “매우 좋았다”로 기록하였고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비해 참여 후에 달라진 점으로 “자신이 미웠다”에서 참여 후에는 “자신이 좋다”는 자기 긍정적 진술을 하여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구체적으로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보고하는 대상자별 변화된 행동 관찰 진술에서 A아동의 경우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을 때가 많고 말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었으나, 미술치료 프로그램 이후에 다른 아동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고 있으며, 말도 많이 하고 표정이 밝아졌으며, 수업시간에도 예전에 비해 집중을 잘 하고 물어보는 말에도 대답을 잘 하는 등의 행동의 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B아동 경우도 이전에는 매우 수줍어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보다 대개 혼자 떨어져 있을 때가 많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자신감이 부족하여 매우 위축돼 보이고 뾰루통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후에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자주 어울리며 자신의 생각을 또박또박 잘 표현하는 자신감 있는 행동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C아동의 경우도 이전에는 낯선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가는 충동적이고 미성숙한 행동이 자주 관찰됐으나 이후에는 약간 경계하는 변화된 행동이 관찰된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최윤숙, 2008; 전원재, 2005; 배철환, 2011; 정수진, 2008; 이명숙, 2012, 박지현, 2010))에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에 위축아동의 위축행동이 감소되었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집단미술치료가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와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집단미술치료가 위축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위축된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도구임을 시사한다.



## VI.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위축아동의 위축행동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따라서 제주도 소재 J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1-3학년 저학년 아동 세 명을 대상으로, 총 12회기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위축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은 결론을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전·후에 교사에게 실시한 위축아동의 위축척도 검사 점수는 모두 감소되었다. 이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위축된 대상자들에게 자기표현과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위축행동을 감소시켰음을 의미한다. 또한 양적 검사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위축행동을 동적 집-나무-사람(KHTP)검사를 사전·사후로 대상아동에게 실시하여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위축과 관련된 그림 표현이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 그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둘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회기진행에 따라 위축아동의 위축행동은 점점 감소하였고, 친사회적 행동은 점점 증가하는 변화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위축행동을 보이는 위축아동으로 하여금 다양한 매체를 탐색하고 흥미를 갖게 함으로써 위축되어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생각과 감정, 주변 세상을 이미지로 창조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감과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외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위축아동의 위축 및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 결정적 요인이 무엇 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별 회기진행에 따라 참여 대상자의 행동관찰과 반응 그리고 프로그램 활동 후 평가지 분석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대상아동들의 사후 행동변화에 대한 진술을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상자별로 행동변화를 일으킨 결정적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집단원 간 상호작용과 미술 작품을 통한 자기표현 등이 향상되고 성취감을 통한 자존감 향상과 의존적이고 소극적, 수줍은 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아동들이 평가한 프로그램 활동 후 평가지 결과에도 세 아동 모두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 비해 참여이후에 자신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종결한 이후의 아동의 생활을 지도하는 사회복지사의 대상아동들의 행동 관찰에서도 위축행동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진술함으로써 아동 자신 뿐 만 아니라 타인이 관찰을 했을 때에도 일치를 보임으로서 결과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위축행동을 보이는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미술치료가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와 친사회적 행동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제언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론을 토대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위축행동을 보이는 위축아동 세 명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중재 적용이 이루어진 연구 결과이므로 모든 위축아동에게 일반화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단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더 많은 수의 위축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위축행동은 내재적인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행동으로 쉽게 변화되지 않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 유형의 하나로 단기프로그램보다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회기별 아동의 행동변화를 보면 회기가 진행될수록 미술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서로 함께 어울리며 상호작용하는 행동이 관찰되는 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장기프로그램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위축아동 세 명은 결손가정의 아동들로 지역아동센터의 다른 아동들에 비해 위축행동이 심한 편이었다. 이는 결손가정 아동이 위축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결손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욕구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 중 B아동은 객관적 검사인 위축척도에서 다른 아동에 비해 위축점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B아동이 다른 아동에 비해 미술활동의 경험이 많고 흥미와 소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술활동을 좋아하는 위축아동에게는 특히 미술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섯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 세 명 모두 위축척도 점수가 70T 이상으로 임상 수준이었으나 사후에 두 아동은 일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다른 한 아동은 두 아동에 비해 위축척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임상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위축척도가 높을수록 위축행동의 변화에는 장기간 미술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동연, 공마리아, 최외선(2006). **HTP와 KHTP 심리진단법**. 대구: 동화문화사.
- 김미라(2009). **집단미술치료가 위축아동의 자기표현력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소희(2011). **인지행동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위축된 아동의 자기지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김수현(2013). **또래지지 중심의 집단놀이 프로그램이 위축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김수희(2009). **저소득 가정 아동의 위축행동 감소를 위한 가창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희(2008). 한지를 이용한 미술활동이 지적장애 아동의 위축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24(1), 137-154.
- 김인홍(2005). 위축 아동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의 효과. **아동간호학회**: 11(4), 396-404.
- 남기엽(2007). **자기표현 훈련프로그램이 위축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 류명수(2008). **미술치료가 아동의 위축행동과 우울 불안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원.
- 문리학(2008). **집단미술치료가 인터넷 중독 초등학생의 자기통제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 문세민(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위축행동과 우울**.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박지현(2010).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와 자아개념향상을 위한 인간중심 미술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 박현주, 서명옥(2009). **미술치료의 매체활용법**. 서울: 학지사.
- 배철환(2011). **집단미술치료가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자기표현력과 위축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 배혜경(2007). **집단미술치료가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의 위축행**

- 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백술애(2008). 한지를 이용한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아동의 위축행동 개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건강대학원.
- 서은영(2010). 집단미술치료가 위축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 대학원.
- 서종숙(2001). 한지를 이용한 미술치료가 아동의 위축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손경옥(2013).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신인영(2001). 초등학교 위축아동의 집단미술치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민섭(2003).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서울: 학지사
- 영남대학교 미술치료연구회(2011). 미술치료학개론. 서울: 학지사.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 K-CBCL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원소영(2011). 관계중심의 미술활동 프로그램이 위축의심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윤명렬(2007). 자기모델링이 위축아의 행동 및 또래수용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정란(2007).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위축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이경희(2000). 또래지도 아동을 통한 역할 놀이가 정인지체아의 위축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도윤(1975). 사회적 고립아의 성격특성과 가정환경의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명숙(2012). 미술치료프로그램이 불안장애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이영숙(2013).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가정 아동의 불안과 자아존중감에 미치

- 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아동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원.
- 이영옥(2006). 시설아동의 위축 및 불안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15(2), 199-225.
- 이은미(2010). 위축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미술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이현숙(2011). 집단미술치료가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지역아동센터 아동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
- 이혜영(2005). 자기성장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한 초등학교의 위축행동 감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은영(2010). 위축아동을 위한 자아상표현 중심 집단미술치료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영신(2004). 그림 속에 있는 미술치료. 서울: 21세기사
- 전원재(2005). 아동 위축행동에 대한 집단미술치료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수진(2008). 입체조형 활동을 중심으로 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위축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정여주(2003). 미술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옥분(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옥현(2013). 점토중심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 조미란(2013). 자기표현중심 미술치료가 위축행동을 보이는 청각장애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조민경(2009). 집단미술치료가 한부모 가정 아동의 위축행동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 주현숙(2010). 미술치료가 차상위계층 아동의 위축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 최성재(2005).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나눔출판사

- 최윤숙(2008). 집단미술치료가 학대받은 아동의 위축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5(2), 229-249.
- 허경화(2002). 청소년의 위축행동 수정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효과에 관한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유경(2003).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교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미술치료학회*: 10(3), 379-407.
- 황정규(1968). *행동진단의 기술*. 서울: 현대교육총서 출판.
- 황주영(2006). 놀이 중심의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위축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 변화: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Burns, R. B. (1984). *The Self concept: Theory, measurement, and behavior*. London: Logman.
- Campbell, R. J. (1989). *Psychiatric dictionary(6th ed.)*. London. UK: Oxford University Press.
- Gottman, J. M. (1977). Toward a definition of social Isolat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8(2), 513-517.
- Lowenfeld, V. (1987). Therapeutic aspects of art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Art Therapy*. 25(4), 112-146.
- Machover, K. (1949). *Personality projection in the drawing of the human figure*. Springfield, III: Chales C. Thomas.
- Malchiod, Cathy A. (2004). *미술치료(The art therapy sourcebook: Art making for personal growth, insight and transformation*, 최재영, 김진연 역). 서울: 조형교육. (원전 2000년 출판)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 and late personal adjustmen: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Ross, A. O. (1974). *Psychopathological of childhood*. New York: John Wiley & Sons.
- Rubin, K. H.,& Mills, R. S. L. (1989). The many faces of social isolation in



- childhood, stability and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37, 92-96.
- Rubin. K. H., & Mills. R. L. (1988). The many faces of social isolation in child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916-924.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Northon & Company Inc.
- Stewart, S. L. (1995). The Social problem and anxious-withdrawn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2), 323-336.
- Ulman E. (1978). *Art therapy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Schocken Books.
- Wadeson, H. S. (1980). *Art psycho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 Wadeson, H. S. (1987). *The Dynamics of art psycho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 Wadeson, H. (2008). 미술심리치료학(*The dynamics of art psychotherapy*, 장연집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1987년 출판)

## Abstract

#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Decreasing the withdrawal Behaviors of children

Hong, Hee Lim

Department of Psychotherapy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Jae Hong**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decrease in withdrawn behaviors of children who are withdrawn.

Approache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oes the group art therapy have any positive effect on the decrease in withdrawn children's withdrawal behaviors?

Second, what change does take place in withdrawn children's withdrawal and pro-social pattern of behaviors each session as the therapy goes on?

Third, what different pattern does appear in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withdrawal and pro-social behaviors according to the participated children's characteristic?

The Participants were three children who are attending an elementary school, and participating local child care center located in Jeju city. They were observed and thought to be those with withdrawn behaviors by the center chief and a social worker specialist.

This study takes singl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o verify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in decreasing children's withdrawal behaviors. Measures were the Children's Behavior Check List -Korean version (K-CBCL), KHTP test and the checklists for withdrawal and pro-social behavior test. Observation of followed with a checklist withdrawal and pro-social behavior during the experiment the therapy. The program consisted of 12 sessions of 50 minutes per session, twice a week, from January 21 through March 14, 2014.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First, it showed that the group art therapy was effective in lessening the withdrawal behavior in withdrawn children. Comparison of T scores was mad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with regard to the withdrawing score in the Korean version of K-CBCL, which implied that T score in post-test became smaller than that in pre-test. In comparative results from pre-post-checklist of withdrawal behavior and pro-social behavior, the post-score indicated a higher outcome than the pre-score, also. The same was true in KHTP picture test, showing a positive change regarding the expression about withdrawal status.

Second, as stepwise procedures proceeded in group art therapy in relation to withdrawal and pro-social behavior pattern in withdrawn children, the frequency of withdrawn behavior decreased whereas the frequency of

pro-social behavior increased.

Third, the decisive reason that caused the withdrawn behavior and pro-social behavior change was assessed through the observation of participated children's action and feedback and the teacher's statement on behavior afterwards. It was indicated that the self-exploration and self-expression were improved via interaction among group members and artwork activity and that the self-esteem was enhanced through a sense of achievement, which makes children's reliance, passivity, and shyness gradually dwindle.

This study suggested that group art therapy in children who were withdrawn was effective. The program could be properly used to decrease withdrawal behaviors in withdrawn children.

*\*KeyWords: group art therapy, withdrawn children, withdrawal behaviors*

## 부 록

부록 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평가지

부록 2 회기별 활동 작품

부록 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평가지

이름:

이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친구들과 함께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 됨 ② 도움 됨 ③ 보통 ④ 별로 도움 안 됨 ⑤ 전혀 도움 안 됨

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 됨 ② 도움 됨 ③ 보통 ④ 별로 도움 안 됨 ⑤ 전혀 도움 안 됨

3.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 됨 ② 도움 됨 ③ 보통 ④ 별로 도움 안 됨 ⑤ 전혀 도움 안 됨

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 됨 ② 도움 됨 ③ 보통 ④ 별로 도움 안 됨 ⑤ 전혀 도움 안 됨

5.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마치며 자신에게 해 주고 싶은 격려의 말이나 각오를 적어보세요.

6. 다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프로그램을 고르고 이유를 적어보세요

다음											
1회기: 자기소개하기	2회기: 자유화그리기	3회기: 난화스크래치	4회기: 플라쥬								
5회기: 돌려 그리기	6회기: 점토로 자화상 만들기	7회기: 물풀 그림그리기	8회기: 가면 역할극	9회기: 휴지통 만들기	10회기: 짝과 그림그리기	11회기: 소망나무 만들기	12회기: 상장/액자 만들기				

7.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예전에는	지금은

## 부록 2. 회기별 활동작품

표 1회기 활동평가




주제		나는 누구일까요? (자기소개하기)	
활동목표		-자신의 이름을 집단원들에게 알린다. -집단원들과 라포를 형성할 수 있다.	
활동내용		자신의 특징 (성격이나 외모, 장점과 단점, 꿈 등)을 생각한 후, 별칭이나 이름으로 명함을 만들어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준비물		명찰, 색연필, 싸인펜, 크레파스.	
기대효과		자신이해, 자기표현 및 참여 동기 증가	
<b>아동 작품</b>			
			
			
<b>아동A</b>		<b>아동B</b>	
주요 반응	아동A	아동은 웅크리고 앉아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아동의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투덜거리며 방해하는 행동을 하였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경계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마치 못해 웅얼거리듯 작은 목소리로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B	한참동안 생각하다 활동을 시작하였고, 다른 아동에 비해 활동을 마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색칠을 꼼꼼하게 하였고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매우 수줍어하고 작은 소리로 “예”나 “아니오”로 대답을 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잘 하며 미술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C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망설이다가 다른 아동이 하는 것을 보면서 꾸미기 시작하였다. 대체로 질문에는 자기생각을 표현하는 편이었으나 목소리가 작고 몸을 비비꼬며 수줍어하며 말하는 모습이 관찰 됐고, 다른 아동이 놀릴 때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평가		첫 회기라 서로 낯설음과 어색함을 감소시키고자 연구자와 집단원간의 라포 형성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활동을 진행함. 별칭이 뭔지에 대해 몰라도 선뜻 물어보지 못하고 연구자의 눈치만 살피는 행동이 관찰 됨. 첫 회기라 라포 형성이 의도한대로 충분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으나 집단원들은 활동소감으로 재미있다고 하였고, B아동은 다음 활동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며 호기심을 보였다.	

표 2회기 활동평가



<b>활동주제</b>		<b>그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그려 보아요 (자유화)</b>
<b>활동목표</b>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b>활동내용</b>		각자 그리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붙이고 집단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b>준비물</b>		도화지, 색연필, 크레파스, 싸인펜.
<b>기대효과</b>		친밀감 형성과 내면탐색 아동 작품
		
<b>아동A</b>		<b>아동B</b>
<b>아동A</b>		작품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자 “아무렇게나 그린 거”라고 말을 하였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이 보였으나 첫 회기보다 다소 밝아 보였다. 가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과 언어사용으로 방해하는 모습도 보였다.
<b>주요 반응</b>	<b>아동B</b>	다른 아동들이 활동을 다 마칠 때 까지도 두리번거리며 활동을 하지 못하던 연구자가 다가가서 왜 그러는 지를 물으니 약간 울상을 지으며 잘 못하겠다고 하여 도화지 반을 접어 테두리를 그려주니 그때서야 그림을 그리더니 쉽게 그림을 그린 후에 급하게 색칠을 하여 완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b>아동C</b>	집단을 마치는 시간에 돼서야 아동이 급하게 들어와 상기된 표정으로 “동생을 데리러 갔다가 늦었다”고 말하며 치료자 옆에 바짝 다가와 앉았다. 연구자가 늦었지만 온 것 대해 지지와 격려의 말로 수용을 하니 다음에 언제 할 건지를 물어 보며 “늦지 않겠다”는 말로 아쉬운 감정을 표현 했다.
	<b>평가</b>	A아동은 성의 없이 급하게 마무리 하는 매우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연구자의 눈치를 아주 많이 살피는 위축된 모습이 잘 관찰되었다. B아동 또한 미술활동에는 아주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른 사람의 활동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매우 초조해하며 울상을 짓기도 하는 등의 위축된 모습이 관찰 되었다. C아동 역시 연구자에게 바짝 가까이 다가와 앉으며 먼저 말을 거는 등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자 하는 행동이 관찰되었다.



표3회기 활동평가


활동주제	내 마음속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컬리스크래치 난화)	
활동목표	-미술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 -내면의 감정을 탐색하고 그림을 표현할 수 있다.	
활동내용	도화지에 먼저 크레파스나 색연필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색을 칠하고 그 위에 검정색으로 덧칠한 다음, 이쑤시개나 나무젓가락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장 기억이 나는 것을 떠올려 그림을 그린다.	
준비물	도화지, 크레파스, 색연필, 파스넛, 이쑤시개, 물티슈.	
기대효과	자기탐색, 자기인식 및 자기표현, 동기유발	
<b>아동 작품</b>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아동A</span> <span>아동B</span> <span>아동C</span> </div>		
주요 반응	아동A	아동은 한참동안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아동들이 하는 것만 지켜보다가 검정색으로 덧칠을 하면서는 갑자기 힘을 내며 파스넛 재료에 흥미를 보였다. 작품의 제목은 붙이지 못했다.
	아동B	‘알록달록 우리집’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자신과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그렸다. 스크래치 활동소감에 대해서 아동은 새로운 그림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신기하고 놀랐다고 했고 검정색을 칠할 때 많이 힘들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끝까지 참고 한 결과에 대해 뿌듯하다는 감정을 표현하였고 격려의 박수를 쳐주니 수줍어는 하나 표정이 아주 밝아졌다.
	아동C	힘들다고 하며 잠깐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다시 일어나 활동을 마치고나서는 “힘들어서 그만 하고 싶었어요”라고 연구자에게 아주 작은 로 말을 하였다. 연구자의 수용에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이 보였다. 연구자가 격려를 하자 그림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족으로 동생과 아빠와 강아지를 그렸다. 동생이 자꾸 때려 화가 나지만 동생이 좋고, 아빠와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했다.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사람은 자신인데, 물을 주면 나무가 잘 자라니까 기분이 좋다고 했다. 표현으로 감정의 복잡하고 갈등이 있음을 혼란스러움이 보였다.
평가	이번 회기는 집단 미술활동에 대한 흥미 유발과 부담을 감소시키고 또한 내면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아동들의 위축된 마음을 이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아동들은 대체로 흥미를 보이며 의욕적으로 끝까지 활동을 하였고, 새롭게 탄생하는 집단원들의 그림을 보며 호기심과 신기함의 느낌을 표현하며 조금씩 긍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다.	

표 4회기 활동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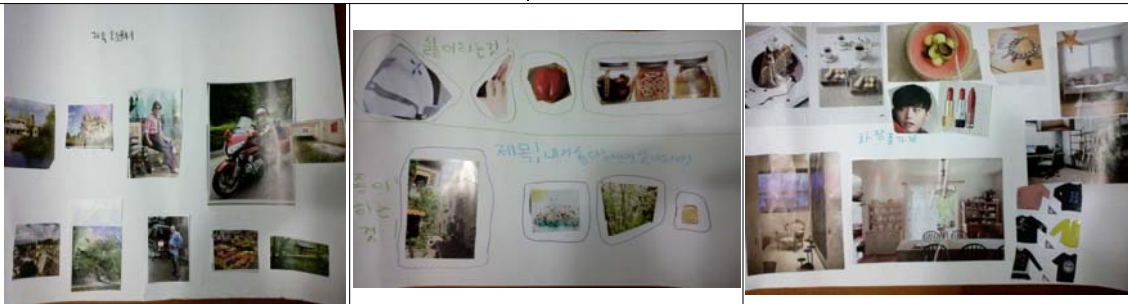
활동주제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은? (플라주)	
활동목표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다. -타인의 욕구를 알고 자신과 다름을 알 수 있다.	
활동내용	잡지나 신문 등에서 좋아하는 것을 오리거나 찢어 붙인 후,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꾸민다.	
준비물	잡지, 가위, 풀, 색연필, 싸인펜, 크레파스, 4절지.	
기대효과	자기감정인식 및 표현, 자기통찰, 타인이해	
<b>아동 작품</b>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아동A</span> <span>아동B</span> <span>아동C</span> </div>		
주요 반응	아동A	아동은 오토바이를 보자 기분 좋은 표정으로 “오토바이를 붙여야지” 하며 신나게 오려 붙이는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남자 사진을 보면서는 “으, 으,이런 사람 쥘 싫어”라고 하며 오려 붙이는 모습도 보였다. 작품의 제목을 붙여 보라고하자 “오토바이”라고 붙였고, 아동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사진들을 구분하지 않고 일렬로 나란히 붙이는 모습이 보였다.
	아동B	아동은 싫어하는 것을 먼저 상단에 붙이고 나서 다음으로 하단에 좋아하는 것을 붙였다. 아동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표현하였다. 지난회기보다 밝아진 표정과 옆에 앉은 C아동이 말을 걸어오자 관심을 보이며 다른 아동의 활동하는 모습을 살피며 함께하려는 모습이 보임. 발표 할 때도 또박또박 약간 커진 목소리로 말을 하여 자신있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C	아동은 많은 그림을 오려 붙이고 나서 제목을 “화장품가게”라고 붙였다. 화장품을 바르면 예뻐 보여 좋다고 했고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것을 표현하면서 수줍음이 관찰됐다.
평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들에게 잡지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오리고 붙이는 플라주 활동을 통하여 쉽고 편안하게 미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자신과 타인의 다른 점을 이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주제로 활동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이전 회기와 다르게 다른 사람의 활동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표 5회기 활동평가


활동주제	나의 그림에 친구가 마음 더하여 그리면...(둘러 그리기)	
활동목표	-다른 랍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활동내용	4절지에 차례대로 돌아가며 그림을 완성한 후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준비물	4절지, 색연필, 싸인펜, 크레파스, 4B연필.	
기대효과	타인이해 및 수용, 사회성 향상	
아동 작품		
		
아동A	아동B	아동C
주요 반응	아동A	A아동은 막대모양으로 사람모습을 그린 후 옆의 아동에게 그림을 돌려주었다. 그런 다음 다른 아동의 그림에는 노랑과 빨강 파스넛으로 집과 로켓을 그려 주었다. 활동작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위축행동을 보이기도 했으나 함께 협력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관찰되었다.
	아동B	B아동은 보라색 색연필로 돼지 얼굴 모양만 그린 다음 다른 아동에게 그림을 돌려주었다. C아동은 개와 돼지의 얼굴모양만 그려 주었고 A아동은 노랑 파스넛으로 집과 로켓을 그려 아동의 그림을 완성했다. 아동은 완성된 그림을 보고 제목을 “신기한 동물원”이라고 붙였고, 마음에 든다고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모습과 수용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동C	C아동은 용지의 하단 중앙에 집을 먼저 그렸다. 그런 다음 A아동이 노랑과 빨간색의 파스넛을 사용하여 집과 비슷한 모양의 그림을 그렸고, B아동은 빨강과 파랑색의 크레파스로 아동이 그린 집과 비슷한 모양이 로봇그림을 그렸다. 아동은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이상해”라고 말하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속상해 하더니 “저녁로켓”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나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림과 달라 이상하다고 말해 낮은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평가	자신의 그림을 다른 사람이 그려주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동에 따라 다르게 보였으나 대체로 활동을 통하여 서로에 대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더라도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6회기 활동평가




활동주제	오물조물 흙으로 만든 내 모습 (점토 자화상)	
활동목표	-심리적 긴장을 완화 시킬 수 있다.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정화의 경험을 갖는다.	
활동내용	점토를 만지는 감촉이 어떤지를 자연스럽게 나눈 후,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다. 도화지에 자신이 작품을 올려놓은 다음, 작품에 대한 느낌을 적어 본다.	
준비물	점토, 조각용 도구, 물티슈.	
기대효과	자기인식, 자기표현, 자존감 향상	
아동 작품		
		
아동A	아동B	아동C
주요 반응	아동A	한참동안 만들지 못해 주저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연구자가 사람을 만들어보라며 동그랗게 점토를 만들어 주자 약간 의욕적인 모습으로 눈을 붙이며 사람을 만들었다. 강조한 듯한 큰 눈은 외부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움크려 앉은 사람의 표현은 두우울한 마음으로 인한 위축된 모습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아동B	자신의 모습을 아주 크게 만들고 남은 점토로 자신의 이름이 쓰인 팻말을 만들어 자신임을 표현하였다. 그런 다음 “지금 나는 센터로 가고 있다. 길을 가는데 고양이를 보았다 정말 귀여웠다”고 자신의 느낌을 글로 써 표현했다.
	아동C	동생의 얼굴을 가장 먼저 만들고 나서 아빠, 언니의 얼굴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복실이, 매미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와 고양이를 만들고 남은 점토를 주물러 뭉쳐놓았다. “나는 지금 강아지와 고양이와 산책을 갔다”고 긴 제목을 붙였다. 연구자가 아동은 어디 있는지를 묻자 말을 못하고 수줍은 웃음을 보였고, 느낌을 물어보니 작은 소리로 “좋아요”라고 했다.
평가	이번 회기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회기로 자신의 신체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 아동들은 점토를 만지면서 “으으 똥 같다”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호기심으로 만지작거리며 장난스럽게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활동하고 나서 자신과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	

표 7회기 활동평가



활동주제	이젠 변화하고 싶어요! (물감 풀 그림)	
활동목표	-자신이 변화해야 할 부분을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다.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활동내용	도화지에 물풀을 풀고 난후 유화 물감으로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린다. 물풀과 물감이라는 부드러운 미술재료의 사용을 통하여 긴장이완과 감정조절을 경험하고 또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여 자신의 변화하고 싶은 것에 대해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다. 활동하면서의 느낌이나 생각도 자연스럽게 말한다.	
준비물	물감, 풀, 도화지, 물티슈.	
기대효과	변화 인식 및 수용, 긴장이완, 감정정화	
	아동 작품	
		
	아동A	아동B
주요 반응	아동A	활동하기 싫다고 하며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다른 아동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예전과 다르게 관심 있게 보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B	봄을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했고, 자신이 생일이 5월이라며 봄을 좋아한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아동의 그림들이 커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아동은 미술활동을 좋아하여 미술활동에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아동C	기분이 울적해 보인 아동은 처음에는 고개를 숙여 활동을 하지 않다가 풀을 도화지에 칠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원하는 것이 잘 안될 때는 연구자가 해주기를 바라고 쉽게 포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함. "무지개와 사람"이란 제목을 붙이고 나서 친구가 가 버릴까봐 걱정된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걱정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미술활동을 끝까지 참고 열심히 한 행동을 연구자가 칭찬해 주자 작은 소리로 먼저 가도 괜찮은지 물었고 괜찮다고 하자 급히 일어나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파란색 얼굴을 한 작은 사람의 모습은 우울함과 위축감이 표현된 것으로 보이며 두 개의 쌍무지개는 아동의 절실한 소망의 표현으로 보임.
평가	이번 회기는 물풀과 유화물감이라는 매우 부드러운 미술재료를 사용하여 긴장이완과 감정조절을 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매체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해소와 감정정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A아동은 참여하지 않았으나 다른 아동들은 부드러운 매체 사용에 처음에는 다소 거부감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으나 매체를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편안하게 다루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등의 집중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표 8회기 활동평가


활동주제		난 이럴 땐 정말 속상해요 (가면 역할극)	
활동목표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다. -상대방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역할극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정화하는 경험을 한다.	
활동내용		지난주 활동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번 한주동안 생활하면서 들었던 감정들에 대해 한사람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해본다. 그런 다음 힘들었던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생각해 본 후, 그런 감정이 들 때의 나의 표정을 도화지에 그려 가면을 만들고 나서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대상을 떠올리고 그 대상에게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가면을 쓰고 역할극으로 표현해 본다.	
준비물		감정을 나타낸 얼굴 표정, 도화지, 크레파스, 색연필, 싸인펜, 가위, 고무줄	
기대효과		자기 감정 표현, 자신 및 타인 감정 이해와 수용, 상호작용, 감정정화 아동 작품	
			
아동A		아동B	
아동A		아동C	
주요 반응	아동A	A아동은 병원에 가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	
	아동B	지난 한주 동안의 생활을 돌아보도록 명상음악을 들을 땐 눈을 감고 명상하는 모습이 무척 진지해 보였다. 어떤 기분이 떠올랐는지 물으니 잠시 망설이다가 “슬펏어요”라고 분명하고 큰 목소리로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였다. 역할극을 해보라고 하니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 본 후, 일어나 가면을 쓰고 약간 주저하다가 “때리지 마, 때리니까 아프고, 마음이 슬퍼”라고 했다. 활동 소감을 물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라고 했으며,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모습이 자신 있어 보였다.	
평가	아동C	아동은 한주동안 잘 지냈다고 하였다. 하지만 가면의 얼굴표정은 화가 난 모습이라고 했다. 화가 난 이유를 물으니 “아빠가 약속을 잘 안 지킨다”고 말하면서 훨씬 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동생도 데리러 가야하고 집안청소도 한다고 하는데 힘들지는 않으며, 아빠도 동생도 다 좋다고 했다. 가면을 쓰고 화가 날 때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하니 없다고 하며 하지 않았고, 활동한 소감을 물으니 “좋았다”고 하여 자신의 솔직한 감정표현의 어려움이 보였다.	
		B아동은 다른 아동의 활동에도 자주 관심을 갖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활동을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C아동은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위축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표 9회기 활동평가


활동주제	우린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요 (휴지통 만들기)	
활동목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갈등상황을 해소하고 감정 변화를 할 수 있다.	
활동내용	요즘 생활을 떠올리면서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를 생각한다. 그 중에서 버리고 싶은 감정은 어떤 것들인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 한 사람씩 차례대로 이야기를 하고나서, 버리고 싶은 감정을 종이에 써서 휴지통에 버린다.	
준비물	신문지, 박스, 풀, 다양한 색종이, 가위, 풀, 색연필, 싸인펜.	
기대효과	자기 감정 인식 및 수용, 타인 감정 이해, 자기 변화	
아동 작품		
		
주요 반응	아동A	아동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며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눈치만 살피다가 연구자가 먼저 신문을 찢기 시작하자 신문을 한 움큼 잡고 아무렇게나 찢더니 재밌어하였다. 다른 아동들과도 말을 하며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기도 했다. 색종이를 오리지 않고 통째로 붙였고, 찢어진 신문을 몽쳐 종이에 싸지 않고 그대로 휴지통에 장난스럽게 버렸다.
	아동B	신문지를 조심스럽게 찢으며 조금씩 밝은 표정과 편안한 모습을 보였고, 휴지통을 만들 때도 색종이를 가위로 오리고 연필로 그림을 그리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잘 선택해서 표현하였다. A아동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으”하며 싫은 소리를 내며 소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아동C	C아동은 바닥에 찢어진 신문지들이 수북해지자 치우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가 나중에 휴지통에 싸서 버리면 된다고 하자 “뭘해요?”라며 살살 신문을 찢으며 불안한 모습으로 연구자 옆에 다가가 붙어 앉으려 했다. B아동이 하는 것을 따라 휴지통에 색종이를 오려 붙이고 그림도 그린 다음, 동생이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연구자에게 가도되는지 허락을 받고 급하게 나갔다.
평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알고 적절하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고,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새로운 경험이라 아동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	

표 10회기 활동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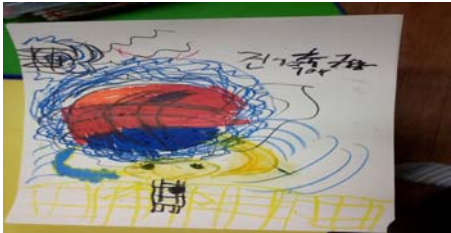

활동주제		<b>둘이 하나 되어! (짜파 그림 그리기)</b>
활동목표		함께 협력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한다.
활동내용		두 사람이 짝이 되어 그리고 싶은 주제를 정한 후, 다양한 미술재료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린다.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고, 또한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이해함으로써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준비물		파스텔, 파스넛, 크레파스, 색연필, 물티슈.
기대효과		타인 이해 및 배려, 상호작용
<b>아동 작품</b>		
		
아동A		아동B, 아동C
주요 반응	아동A	아동은 파스넛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며 즐겁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다른 어느 회기보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은 자신이 축구를 하는 모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자신은 축구를 잘 하지 못하며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싶어도 잘하지 못해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기만 할 때가 많다는 말을 하면서 잡자기 작은 목소리로 움츠러들며 위축되어 보였다.
	아동B 아동C	C아동이 먼저 B아동에게 “언니 우리 뭐 그럴까?”라며 물어보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다. 그러자 B아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무엇인가를 그리자 C아동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C아동은 B아동을 좋아하여 간식을 챙겨다 주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B아동도 C아동이 이런 행동을 수용하면서 서로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면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잘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A아동과는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눈치를 많이 살피는 위축행동을 보였다. 처음에 연필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린 후에 색연필과 파스텔을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미술재료의 사용으로 아동의 정서적으로 평안한 모습을 보였다.
평가		두 사람이 협력하여 그림을 완성함으로써 위축아동들이 어려워하는 함께 하는 행동을 시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경험을 통하여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표 11회기 활동평가




활동주제		나의 간절한 소망은... (소망나무)	
활동목표		-자신이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을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활동내용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지를 생각해 본 후, 나무로 자신의 미래를 표현해 본다.	
준비물		파스넛, 파스텔, 색연필, 크레파스, 4절 도화지.	
기대효과		자존감향상, 긍정적 가치관 형성	
아동 작품			
			
아동A		아동B	
아동A		아동C	
주요 반응	아동A	연필로 동그라미를 여러 개 그리고 나서 아무렇게나 선을 그려나갔다. 파스넛으로 색칠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보임. 그림의 제목을 물어보라고 하자 한참동안 생각하는 모습도 보임. 연구자가 동그라미가 무엇인지를 물으니 모르겠다고 하여 눈같이 보인다고 하자 아동은 “눈이 많이 달린 나무”라고 했고, 이제 늙어 죽을 거라고 했다가 죽지 않는 나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눈은 “자신을 감시하는 눈”이라고 말했고 자신은 파랑색을 좋아한다고 했다. 하고 나서 소감을 물으니 파스넛으로 칠하는 것이 좋았다고 하였다.	
	아동B	아동은 나무를 크레파스로 그리고 나서 열매에 자신이 바라는 소망들을 글로 써서 표현 하였다. 파스텔 재료를 사용하여 주변을 색칠하였고 다른 아동에 비해 활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바라는 꿈들이 이루어지려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다.	
	아동C	처음엔 크레파스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다가 B아동이 파스텔을 사용하는 것을 보더니 띠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과가 셀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이 달린 사과나무”라고 했다. 빨간색이 마음에 들고 파스넛으로 칠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활동을 하다 중간에 동생을 데리러 가야한다고 걱정하면서도 끝까지 활동을 하여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아동은 파스넛 재료를 좋아해 갖고 싶다는 마음을 여러 번 표현하였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	꿈나무 그리는 활동을 하면서 아동들은 자신이 되고 싶은 꿈을 생각해 보게 됐던 시간이 되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표 12회기 활동평가

활동주제	소중한 나를 칭찬해요 (상장 만들기)	
활동목표	-자신과 타인이 소중한 존재임을 안다. -자신의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활동내용	지금까지의 회기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해 주고 싶은 칭찬과 격려의 상장을 만든 후, 한사람씩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하고 집단원들이 박수로 격려한다. 평가지를 통해 미술활동 전회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활동을 평가하며 자신의 변화를 이해하고 의지를 다져본다.	
기대효과	자존감 향상, 정서적 지지와 격려, 성취감.	
아동 작품		
		
	아동A	아동B
주요 반응	아동A	아동은 아주 침착하게 그림을 그리고 연구자의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는 모습으로 매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액자에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밑에 “잘한다”는 글을 쓰고 나서 흐뭇한 표정을 보였다. 연구자가 그런 모습에 격려하며 별을 그려주고 나서 “어린 왕자 같다” 느낌을 표현하자 웃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B	아동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을 수여 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쓰고 나서 바탕에 크레파스로 꽃을 그리고 파스텔로 연하게 정성껏 색칠하며 뿌듯한 모습을 보였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색이 따뜻하고 밝은 색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동C	아동도 A아동처럼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나서, “잘 한다”고 쓰고 나서 마음에 들어 하였다.
평가	마지막회기라 집단에 참여한 아동 모두가 프로그램의 종결을 아쉬워하였다. 그러면서도 집단 활동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뿌듯함과 집단원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던 경험과 작품의 창조활동이 재미있고 좋았으며 뿌듯하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